



南無土大王碑

己卯元旦

그림=송영방 화백(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 손 씻기 아침

윤재림

1 친구여, 나 지금 재네를 생각하며 손을 씻네. 어느 여관이던가 印度로 가는 길. 새로운 세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오른 손을 깨끗이 씻어두는 것이라며 씻고 또 씻던 재네의 왼 손을 생각하네. 그것은 밥에 대한 예의, 그것은 책에 대한 예의, 그것은 다른 손들에 대한 예의라 했지.

2 나, 이 아침에 손을 씻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식탁을 얼마나 많은 종이와 책들을 다뤄왔는가 반성하며 손을 씻네. 나, 지금 쿨거본 세상의 입구에서 손을 씻네. 8톤 트럭 가득 거대한 시간의 이삿짐들, 저 지나간 아침 행렬 어딘가엔 재네도 끼어있을 터. 무주 구천동 가는 길 나제등문을 맑은 시간의 문이 저만치 울려다 보이는 개울가에서, 나 지금 손을 씻네.

금강역사 금강저를 들고, 동서남북 사천왕들 새 천년의 기차창권을 들고, 통방울은 흔드며, 주먹을 내리쳐누며,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한 손에 잡히는 깨끗한 물건 하나씩만 갖고 가라길래, 친구여 흥친 책들도 버리고, 때물은 돈다발도 버리고, 낡은 사진첩도 버리고, 흐린 거울도 버리느라 손들 밑까지 가애진 손을 씻네. 팔레바위 닳도록 허얇게 문지르네. 비누 하나 다 버리며 손을 씻네. 재네의 하얀 손 하나 붙잡고 가려고 말갭게 씻네.

3 친구여, 내 소리쳐 부르거들랑 달려와 새로운 천년 갖고 갈 물건 하나로 내 시린 손 덩석 잡아 주시려는가. 눈담인 다리 밑 얼음장 깨고 나 지금 손을 씻네, 친구여. 새로 만날 밥들을 위해, 새로 만날 책들을 위해, 새로 만날 다른 손들을 위해.



### 신한은행 이회창 회장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수여



본교는 지난해 12월 16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회창 신한국은행 회장에 명예 경제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 참사참봉사단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기탁

참사참 봉사단(단장=송석규·철학)은 지난해 12월 25일 중구 관내 무의락 노인, 보자 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을 기탁했다.

### 제27회 동국인의 밤 개최 이태근씨 등 감사패 수여

제27회 동국인의 밤이 지난해 12월 17일 5백여명이 동문 및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소피탈 엠베서더에서 개최되었다. 이찬경(경찰행정 76)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황명수(정치외교 53) 총동맹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오늘날의 총동맹회와 모교를 있게 한 힘의 원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여학생부처 인터넷 무료교육 실시

서울캠 여학생부처(처장=임은희·사회)는 통계방학을 맞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인터넷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 연극영상학부 · 경찰행정학과 특차 평균점수 상승

## 서울캠 정시모집 5.2대1 ... 캠프 특차수석 박지은양 · 김성수군

99학년도 서울캠 정시모집이 5.2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 까지 실시된 정시모집에서 총2천3백76명 모집에 1만2천4백99명이 지원하였으며 특히 연극영상학부 연기·기술은 15명 모집에 5백60명이 지원해 37.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야)는 11명 모집에 5백87명이 지원해 27.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1의 일정수준의 지원율을 보였다"며 "이러한 안정적인 지원율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특차모집은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여년과 마찬가지로 연극영상학부 연기·기술은 15명 모집에 8백86명이 지원해 59.06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차모집의 최고 득점자는 390.38점을 획득하여 예·제능계 수석을 차지한 한성과학교의 박지은양으로 연극영상학부 이은·연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극영상학부 연기·기술에 이경재, 김소연 등 현 연기자들이 지원해 합격하기도 했다.

각이 주어지는 연극영상학부 이은·연출, 경찰행정학과 등의 평균점수가 지난해 2.9%에서 1.6%로, 2.9%에서 2.3%로 각각 1.3%, 0.6%의 상승을 보였다. 경주캠 특차일반전형을 살펴보면 정원 48명에 총 지원 1백54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능 성적인 인문·자연 계열의 정복상위 2% 이내에 지원이 가능한 한의예과의 경우 24명 모집에 78명이 지원을 해 3.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의과과는 수능성적 상위 4% 이내 10명 모집에 44명이 지원을 해 4.4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이번 특차일반전형에서 최고 득점자는 한의예과를 지원한 김성수(학식고졸)군으로 총 1



도서관에 마련된 정시창구에서 한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집 모집(종합생활기목부 4백점 모집, 수능성적 6백점)에 수능성적 3백86.73(4백점 기준), 총점 9백80.00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입학과는 "예년에 비해 특차특별전형이 정원에 미

달이 돼 타 계열에서 추가로 선 발기로 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치러진 경주캠 정시 모집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개방했다.

### 교수회 14대 총장후보 선출

#### 홍치유·조희영 교수 ... 재단, "인정할 수 없다"

교수회(회장=유덕기, 생명자원경제학)의 14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에서 홍치유 교수와 조희영 교수가 총장후보로 선출됐다.

재단은 지원되지 않아 교수회 선관위에서 유권자를 자체 집계해서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8면

### 교수동정

▲김주필(응용생물학)=지난 12월 2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중국 산 북대극기에 관한 연구자 중국 북경 방문

▲이금석(컴퓨터공학)=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참가

▲이혜은(자리교육학)=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1999ECAI meeting에서 논문발표

▲양민(중국 청학대)=올해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년간 경주캠 준문과 교수로 초빙

- 임 정기자
- 이미숙 (사태대 사회과학계 1)
- 임 수숙기자
- 김미영 (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1)
- 이원민지
- 최영희 (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1)
- 이상 1월 1일자

### 2차 민중대회

## 서울 비롯 전국 9개도시 동시 개최 정리하고 저지·재벌해체 등 근본적인 사회개혁 촉구

"정리하고 저지, 생존권 사수, 재벌 해체, IMF 반대를 위한 2차 민중대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되었다.



2차 민중대회에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민중대회는 지난해 11월 8일 치러진 1차 민중대회 이후 결의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각 지역별 집회와 더불어 열린 '수도권 민중대회'는 오후 2시 종교에서 김태현 전민주노총 동맹합동연맹(이하 민주노총) 기획국장의 사회로 사전집회의 막을 열었다. 먼저 사인영 조흥시스템 노조위원장은 현재 명동성당에는 회사의 부당하고 협회를 위한 조흥시스템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실패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정리하고 저지, 재벌해체, IMF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경찰들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민중대회는 현시기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당면문제 해결과 함께 현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촉구하고, 이후 전개될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도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숙 기자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 우리 함께 얘기해요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동국의 발전은 시급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학내는 불교종합병원 건립, 제3캠퍼스,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옛말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봅시다. 바로 여기 대학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동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 “식당업주 선정시 학생참여 하되 의결권 없다”

## 소위원회 - 직원대표 3명 학생대표 2명 고문위원 2명, 식당문제 논의키로 합의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섭·홍교3 이하 중운위) 위원들이 온 있을 식당업주 선정문제를 두고 지난 28일 학생 및 사무처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간에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 화될 전망이다.

중운위측은 식당문제를 관련해 그동안 거처에 걸쳐 학교측과의 면담을 가져 왔으며, 지난 24일 총학생회사무실에서 11명의 단대학생회장 및 자치기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중 1차 중운위를 가진 이후 매일 비정규직위원을 소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운위 위원들은 “식당문제의 장기적 대안을 위한 기폭제”인 학생 및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학교측에 요구한 사항은 △학생회장과 및 도서관 식당 업무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 공개 △내년 식당을 포함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공개입찰 △내년 복지위원회의(가칭)의 구성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입찰용 대학복지위원회를 통해 식당운영상에 따른 모든 사안을 합

계 논의 △학생소비협동조합 건설 과정에 학생 참여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황재영 부총학생회장(수교3)은 “7백 50명의 공간에 하루 평균 3천여명이 넘게 이용하는 학생회관 식당이 어떻게 보증금 7백만원에 시설이 50여만원 밖에 안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지금까지 식당에서 학교측과 업무추진의 수의계약에 따른 투명성문제도 이번이 최고 날이거니와 ‘몇몇’이라는 식당업주의 공개입찰시 학생들의 참여보장을 주장했다.

이에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비롯한 도서관 식당의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이며, 이는 학생들의 의식주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식당업무 공개입찰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이후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가진 중운위 회의에서는 이번 식당 문제에 대해 지난 30일까지 식당측

학복지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보장이 어려운 이유로 △학생 제도상의 까다로운 절차 △다른 위원(기초 행정위원회 성격)과 비교해 불명확한 행정성 논리에 부합함을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관을 비롯한 도서관 식당의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이며, 이는 학생들의 의식주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식당업무 공개입찰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이후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가진 중운위 회의에서는 이번 식당 문제에 대해 지난 30일까지 식당측



사진은 지난 28일 학생회장실에서 가진 간담회 모습

# 지정연,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 34개 창업 기획안 채택...오는 3월 2차 공모

지역정책연구소(소장=황윤식·회계학 이하 지정연)는 지난해 11월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 계획서를 공모한 결과 34개의 계획안을 1차 선정했다.

한편 지정연은 상하에 창업보육센터 건립기회(단장=변정용·전자계산학)를 두고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정연의 문태수(정보산업학)교수는 “이번달 안에 부총장 산하의 독립적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3월말에 경주형 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인근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이용, 경주만의 문화레크리노파크 조성에 그 의의

가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필요한 요건으로는 건물 신축과 투자기금 확보, 창업세미나 및 법률교육 등이라 덧붙였다.

창업보육센터는 경주시·경북추진업 5차, 창업보육센터 직영사업 1차, 공모사업신청제 14차 등의 2차 공모에 장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예정이며, 오는 3월말에 2차 공모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지정연의 황윤식 소장은 “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사구시형 창업교육을 구현한다는데 보육센터 건립의 근본적인 취지가 두고있으며,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겨울방학 참사당 봉사단 모집

## 올 학기초부터 직불카드 검용 학생증 발급

장학과(과장=하정호)는 98학년도 겨울방학 참사당봉사단을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봉사활동기간은 98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월 28일까지 최소 33시간 이상을 완료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3시간)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봉사단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이후 1주일 이내에 봉사활동기록에 대한 보고서 제출 △수강신청시 제한적인 초과 신청가능 △졸업이수학점으로 2학점까지 이수가능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겨울 방학동안 활동할 참사당봉사단 산하 비영리 청소년단체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0여명이며, 신청시 대구지점 소년상담실과 경주지점과 함께 참사당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 황병호 교수는 “겨울방학동안에 학교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학성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장학과는 학과 및 동아리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공로에 예경이다. 자택은 2인1인이 참가해 3개월이상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학과 및 동아리팀이며, 채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지급된다.

한편, 장학과는 98학년도 1학기부터 직불카드를 겸한 학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우선 이 학생증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개강후 사정이 일괄적으로 수거된 후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 측은 “이미 대학의 경우 어카운터 직불카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늦은 것이 없지 않으나 올해 초부터 지급하는 학생증이 학생들의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관산연, 월간 인터넷 선정

## 전국 지역 정보사이트부문 “1위”

98 월간 인터넷 선정 전국 지역 정보사이트 부문에서 관산연 연구소(소장=서태양·관공정)가 1위를 차지했다. 선정위원회의 인터넷 선정위원 “경북관광정보”(<http://www.kyounghub.com.or.kr>)가 1위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관산연의 경북 관련 정보사이트는 경북도내 관광명소, 숙박업의시설 등을 문의하는 네티즌들에게 시기와 상황에 맞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는 Q&A코너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관산연측은 “학술적인 자료보다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어 제공함으로써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관산연의 주요활동은 보인 △전리안을 비롯한 5개

국내 공공 통신망 정보제공 △경상북도 관광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관리 △북부지역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제공 등

**생활관, 21일부터 4일간 개방**  
수험생을 위한 숙식 제공

금정생활관(관장=김복순·국사학)은 98학년도 정시모집전경 중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4일간 생활관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객실방문 및 전화연락(또는 온라인 접수)으로 접수 가능한 생활관 사용은 지난 달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금액은 1인을 기준으로 △1박 2일(24)~1인 8천 5백원 △2박 3일(54)~3인 9천 5백원이다.

이와 관련해 금정생활관의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숙사를 개방한 것이며, 예년과 달리 절구학도 제공 해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시년도와 관련해 금정생활관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남학생 5백 32명, 여학생 3백 37명이며, 호실수는 3인 1실을 기준으로 총 3백 64실이다.

# 인터넷 지원을 저조... 무기한 연기

## 지방학생에게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 이뤄져야

취업과(과장=최찬호)는 당초 노동부에서 분교에 배정된 인터넷 1백 48명중 신청자가 30명에 불과해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인터넷모집기간을 무기한 연기로 하고 밝혔다.

이러한 인터넷 신청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3D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조율 △정직원인 아니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 대대체 협력이 후 3D 직종 종사자의 증가

이와 관련해 취업과 관계자는 “대학졸업이라는 가치된 명분보다는 현실을 감안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든 할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이번 인터넷지원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대다수에 소재해 있어 분교 학생들이 인터넷이 됐을 시 이들에게 하는 등 거꾸머리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지방학생들을 위한 정부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후, 지난 30일 학교측은 “식당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3명, 학생대표 2명, 고문위원 2명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말에 경주형 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인근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이용, 경주만의 문화레크리노파크 조성에 그 의의

# 제절학기 2과목 개설

## ‘생활과 조경’, ‘북한사회의 이해’

교무과(과장=조원생)는 지난달 21일부터 16일간 9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조경’은 여러 과목에 대한 개설 필요성이 들어왔으나, 인원조정 관계로 2과목밖에 개설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노조 ‘송년의 밤’ 가져

## 99 군사훈련 참가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정형·교무과)은 지난달 22일 금정생활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위문장 인사말, 훈장 및 부총장 격려사 등으로 이튿날 1부행사와 민찬 봉사단 치러진 2부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직군단(단장=김태경·총합)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99군사훈련 기초 군사훈련을 경기도 성남에 있는 화성중앙군사학교에서 가졌다.

2학년 20여명이 참가해 99명명성훈장 체험 및 후방부 교육과정 소개 교육사 기쁘고의식 습득 △강조 규정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전문)대졸 미취업자 정보통신 전환교육생 모집 안내**

본 컴퓨터교육원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졸 미취업자 정보통신 전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생을 아래와같이 모집합니다.

다 음 -

1. 모집인원 : 40명(선착순모집, 교육비 70% 정보통신부 지원)
2. 지원자격 :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전공 분야 제한 없음, 대학원, 해외유학, 군복무 기간 등은 상시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수혜자 제외)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 99. 2. 8 ~ 99. 2. 19
  - 나. 구비서류 : 소정양식(지원서, 서약서), 졸업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사본, 컴퓨터관련 자격증 사본 (취득자에 한함)
4. 교육기간 : 1999. 3. 1 ~ 1999. 8. 31
5. 교육내용 :
  -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 과정 전산개론,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전자표준기구조, 컴퓨터메이스, 운영체제, 컴퓨터통신망, 지스넷망설계, 인터넷, 소프트웨어공학, 전산수학, 프로그래밍수학
6.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컴퓨터교육원(도서관 3층)
7. 교육특징
  - 평형 인터넷, 전자우편 ID 발급
  - 취업특강 개최 및 취업방법 설명
  - 동국대학교 취업과 협력하여 취업알선
  - 인터넷을 통한 취업 알선
8. 문의 : (051)770-2486~9 (09:00~17:00) <http://moonsu.dongguk.ac.kr>

**컴퓨터교육원장**

**컴퓨터실습실 방중 개방시간 안내**

98년도 동계방학 중 단속근무로 인해 컴퓨터실습실 개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

1. 기간 : 99. 1. 1 ~ 99. 2. 19

가. 개방시간 : 오전 09:30 ~ 15:00

나. 개방 가능한 실습실

기 간	실 습 실
1월1일 ~ 1월 29일	실습실 C(전공관2층)
2월1일 ~ 2월 19일	실습실 B(도서관3층)

2. 기타사항

가. 재학생에 한해 실습실 사용가능. (외부인 출입불허)

나. 사용자중 실습실에 음식물 반입 및 집단 금지.

**학 생 처 장**

**99-1학기 학적업무 일정 안내**

'99학년도 제 1학기 학적업무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주어진 기간내에 관련사항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다 음 -

1. 일 정

가. 복학 및 재입학 : 99. 2. 22(월) ~ 2. 24(수)

나. 일반휴학 : 99. 3. 2(화) ~ 3. 4(목)

다. 전부(과) 신청 : 99. 3. 2(화) ~ 3. 3(수)

가. 대상자 : 2학년 복학생으로 1학년 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나. 복수전공 신청(추가) : 99. 3. 2(화) ~ 3. 3(수)

다. 대상자 : 3학년 재학생 중 미신청자 및 복학생

나. 조기졸업 신청 : 99. 3. 8(월) ~ 3. 10(수)

가. 대상자 : 4학년 재학생으로 7학기이내 학적졸업학점이 이수가능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나.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교무처 학적팀 (☎ 2038-39)

3. 유의사항 : 해당 학생은 반드시 주어진 기간을 준수하여 자취 신청으로 인한 개인의 책임이 없도록 하기 바람.

**교 무 처 장**

**토익·토플 특강 안내**

1. 개강 : 99년 1월 4일(개강일에는 수강생 전원 토익 모의시험 무료 실시)

과 목	강 의 시 간	교 육 내 용	교 재
아카데미	오전 9시~	영문법의 이해, 독해	별도구입
토플반	오전 10시	단어·속어 강의	
토익	오전 10시10분~	Listening유형완	부표지급
L/C반	오전 11시10분	para별 출제경향 분석	
토익	오전 11시20분~	문법이해, 오답정정	부표지급
R/C 반	오후 12시20분	대형 대응 요령 학습	
신청장	오후 1시~	이런을 통한 영어	별도구입
토플반	오후 2시	속어 강의, 직독직해	

2. 수강료 : 2개월 35,000원(1개월:25,000)주 5일 강의

3. 초빙강사 : 김성태 선생(토익 950점, 경북대 영문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경선대 및 기업체 전임강사로 재직)

4. 강의실 : A306

5. 접수기간 : 1998년 12월 7일 ~ 1999년 1월 4일

6. 접수처 : 취업과(원호동 수리실 옆) T: 770-2054

**학 생 처 장**

# 본교 대학운영위원회 창설 가시화

## 총학, 간담회에서 제안 ... 학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총도, 8일까지 부분 휴관 원서접수 및 고사 관계로

중앙도서관(관장=김병식·화학공학)은 99학년도 신입생 선불을 위한 원서 접수 및 고사 관계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제 1열람실을 휴관하며, 오늘(1일)은 신년휴가도 전관 휴관한다.

한편, 방학을 맞아 오는 2월 20일까지 1층 멀티미디어실, 2층 과제도서실, 불교학 자료실, 3층 참고도서실, 정기 간행물실 등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개관하며 토요일은 휴관한다.

### 외국어교육원 시청각실 개방시간 단축

외국어교육원(원장=김정배·영문학)은 통폐합을 맞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시청각실 개방시간을 단축 운영한다.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하던 것을 이번 통폐합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개방시간을 조절했다.

### 99학년도 O·T 22일부터 새터 24일 소백산에서

99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월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일주일동안 진행된다. 22일에는 전체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토의시범이 치러지며, 23일에는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과 수강신청이, 24일부터 28일까지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새터촌 새마을지구 소백산유수호스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이석중·유진호 초 당선

15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이석중(임학 박사 과정 1학기)·유진호(사회학 석사과정 2학기)가 투표율 18.4%, 지지율 91%로 당선됐다.

### 정·부회장 제1262호(12월 7일자) 학생회 선거 관련기사 불교대 불교학부 정·부학생회장'을 학부대표로 정정합니다.

본교에도 교수, 학생, 직원 등의 학내 3주체와 학교측의 대표가 참여해 전반적인 학교발전과 학내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의결 할 수 있는 가칭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구의 창설제안은 지난 12월 18일 총장실에서 열린 학교 당국과 학생대표위원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교 당국도 기구 창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측에서 송석구 총장을 비롯해서 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처장 등과 학생대표를 제1대 김호중(불교2)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운영위 문제를 비롯해서 ▲이월직립금 문제 ▲불교종합병원의 재정확보방안 문제 ▲라내 공간 활용문제 ▲학제개편문제 등이 논의됐으며, 이후 상시적인 간담회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 노동부 주관 인턴사원제 학생 '복직'

## 취업난 타개위한 자구책 ...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기업취업 대학생 인턴사원 1차 모집결과 본교에서는 4백여명의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각 대학에서 졸업생, 졸업예정자, 휴학생(7학기 이수자), 졸업 후 공전역(예정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기업의 합의를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면서 산업현장 경험 및 사회 적응 기회를 갖도록 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턴사원제는 올 99년 한해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이석중·유진호 초 당선

15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이석중(임학 박사 과정 1학기)·유진호(사회학 석사과정 2학기)가 투표율 18.4%, 지지율 91%로 당선됐다.

간담회에서 학생대표들이 제안한 운영위의 모수는 위원장을 총장으로 하고 교수,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등 학내 3주체 대표 각각 2명을 구성원으로 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하는 독립기구가 △본교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기능 ▲학교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권 ▲재단과 학교의 운영에 심각한 의혹이 발생시 외부감사실시권 등을 주요 권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석구(철학) 총장은 올 부즈맨데도 도입 된 이후에 학생처와 학생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논의의 가져가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단은 논의가 주목한 상태이다.

대학도 조신대, 한신대 등에서는 실제 자치협회의, 교수, 직원, 학생 3자 협의 등이 있고, 서울대에서는 또 빠르른 다음 학기부터 '대학경영 회의'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의 모든 주체가 참여

하여 학교발전방안과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실질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현 조규철 총장이 제안해서 지난해 11월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여 합리적인 학교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의 중요한 정책을 최종 심의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학령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중심이 돼 운영위를 먼저 제안했지만 앞으로 학내의 모든 주체들과 함께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학교측도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회 등에서도



지난해 12월 18일 총장실에서 학생대표와 송석구 총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의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 상당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민주적인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해왔던 대학에서 다시한번 학내 3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대학은 진정한 발전에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운영위 건설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 동연, 학자간담회 진행

## 총장낙점 · 이월직립금 문제 등 토론

동아리연합회(회장=박종근·영문(043)) 학자 간담회가 지난 달 22일 각 동아리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한 학기동안 학내에서 정쟁화 되었던 총장낙점, 5백여 이월직립금, 불교종합병원의 건립 및 제3캠퍼스 건립문제, 본교를 비롯한 대학구조조정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총학생회에서 학교당국에 제안한 대학운영위 건설문제와 공공기관, 등 특목 및 학제개편문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중심이 돼 운영위를 먼저 제안했지만 앞으로 학내의 모든 주체들과 함께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학교측도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회 등에서도

# 동국산악회 마나슬루봉 정복

## 박영석등문 히말라야 14좌중 9번째 등정

지난해 12월 6일 박영석등문이 이끄는 동국산악회 마나슬루봉의 마나슬루봉(8천4백63m) 정복에 성공했다.

이로써 박영석등문은 8천4백63봉을 무리로써 10번째, 히말라야 14좌중 9번째 봉우리를 정복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5일 네팔 시마가

을 부근 베이스캠프에서 출발한 후 눈보라와 거센 바람 탓에 2차 대 정상공격에 실패한 끝에 현지 세프와 2명과 함께 정상을 밟았다.

박영석등문은 앞으로 마칼루, 칸첸중카, 시시방마, 브로드피크, K2를 오르며 히말라야 8천2m급 고봉 14좌를 모두 정복해 간다.

### 정·부회장 제1262호(12월 7일자) 학생회 선거 관련기사 불교대 불교학부 정·부학생회장'을 학부대표로 정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중심이 돼 운영위를 먼저 제안했지만 앞으로 학내의 모든 주체들과 함께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학교측도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회 등에서도

# "최초 발급은 무료입니다"

## 새 학생증 발급 신청 부진

지난해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새학생증 발급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증 발급 신청서 배포된 직후에 담당하는 각 대학 교과의 홍보가 미약해 신청서 배포 및 회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증 변경 사항 공표문에 개재된 재발급 비용 5천원이 최초발

급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오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학생증은 기존의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최초 발급은 무료이며 재발급 시에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 정·부회장 제1262호(12월 7일자) 학생회 선거 관련기사 불교대 불교학부 정·부학생회장'을 학부대표로 정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중심이 돼 운영위를 먼저 제안했지만 앞으로 학내의 모든 주체들과 함께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학교측도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회 등에서도

### 정·부회장 제1262호(12월 7일자) 학생회 선거 관련기사 불교대 불교학부 정·부학생회장'을 학부대표로 정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중심이 돼 운영위를 먼저 제안했지만 앞으로 학내의 모든 주체들과 함께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학교측도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회 등에서도

# 동국발전기금소식

기간: '88.10.11~11.30까지  
발전기금/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1천만원이상  
윤국 대 학 11,200,700원 (합 13,875,620원)  
김상구(건축토목공학부 교수)1천만 원(합1천2백만원)

박원준(한외85졸, 박사과정)1천만원  
유종영(한외86졸, 박사과정)1천만원  
한국R.P.주주관리위원회1천만원(합 105,000,000원)

▲5백만원  
김정호(화 학 공 학 과 교수) 합 23,010,000원

조정래(국어국문학과66졸,소설가)  
▲1백만원이상  
김대부(명예교수)30백만원(합9백만원)  
신상국(한외94졸,한외임원장)20백만원  
민인숙(한외95졸,한외학과석사과정)2백만원

▲1백만원  
김수진(신도) 강중수(신도)  
김호찬(경영학과73졸)  
김호원(경영학과95졸,공인회계사)  
최정현(신도), 우부순(신도)  
구봉희(학부보,구자학부부)  
권기상(신도)  
권미영(신도,경력중요 초등학교 교

사)  
권승하(불교계(신도), 권승하(불교계(신도), 권혁산(신도)  
김경동(한외85졸)  
김광수(신도,영문학전지나어원대표)  
김성진(한외89졸), 김승현(한외87졸)  
김선호(신도,해태제과영업소대리)  
김수진(신도), 김승환(신도)  
김영준(한외88졸), 김진기(신도)  
김현철(신도), 김태은(신도)  
김태호(신도), 김원수(한외89졸)  
김형태(신도), 김희준(한외87졸)  
김효순(신도, 화문사원장)  
문말복(신도), 문복순(신도)  
문상영(한외89졸), 박길원(신도)  
박재호(관공, 금강사회복지관관장)  
박우재(신도), 박홍호(신도)  
박우진(신도, 중화방직재야업사)  
사채성(신도), 배보전(신도)  
사재성(신도), 서흥은(한외89졸)  
신원식(경희대학교화과졸)  
신형철(신도), 유지래(신도)  
유휘영(신도), 한국외환은행지점장)  
유성욱(신도), 유종관(신도)  
유은숙(신도), 이대연(신도)  
유병선(신도, 대일사주사)  
이유형(한외85졸), 이복순(신도)  
이상현(한외89졸), 이대연(신도)  
이호찬(경영학과73졸, 공인회계사)  
이호원(경영학과95졸, 공인회계사)  
이호원(신도), 우부순(신도)  
구봉희(학부보, 구자학부부)  
권기상(신도)  
권미영(신도, 경력중요 초등학교 교

정병문(한외91졸), 정인재(한외86졸)  
정주호(한외87졸), 정영구(신도)  
조승우(신도, 미하연주자)  
최형석(신도), 최순기(불교대학원)  
최재용(신도), 최재진(한외85졸)  
최해순(신도), 한근성(신도, 자사)  
한덕표(신도), 허병태(신도)  
홍영선(신도), 홍우건숙  
황정자(신도), 황원기(한외88졸)  
▲50만원이상  
고경숙(명중대학원)300만원  
유길수(문화예술대학원)70만원(합 270만원)

▲50만원  
김길성(한외90졸), 김상근(한외91졸)  
김상태(한외94졸), 김세은(한외94졸)  
박명진(신도, 동우건축)  
박연서(신도), 박일원(한외92졸)  
박창조(한외89졸), 박태훈(한외91졸)  
서정준(한외86졸), 송현주(한외94졸)  
이경아(한외91졸), 이구영(한외94졸)  
이우연(한외94졸), 이재중(한외93졸)  
장경서(신도), 정영재(한외92졸)  
정준관(한외91졸)

장복수(신도), 장지영(신도)  
장성희, 장영석(신도)  
최귀민(신도), 최수영(신도)  
허복호(신도), 혜정님(신도)  
홍종숙(신도)  
황성훈(신도)(합20만원)  
▲20만원이상  
이진구7만원  
이수훈(신도)6만원(합19만원)  
▲5만원  
곽두영(신도), 김광복(신도)  
김명자(신도)  
김영현(신도)(합15만원)  
서원진(신도)  
안연순(신도,백악이부자대표)  
윤정민(신도), 윤정순(신도)  
이영, 장영성(신도), 장조자(신도)  
조영태(신도), 한정자(신도)  
황성훈(신도)(합20만원)

김지환(기회발전원)26,210원  
▲1천원  
▲일회헌금수시지원금  
신현은(영광장 리용장)30여원  
▲서림원기념기금  
경주서림원125명대원  
경주학인스님5명동생2백만원  
보경사15백만원, 포항보경사14백만원  
동명불영55백만원, 문수사13백만원  
영남불교대학(우학스님)150만원  
무관스님, 만성산(우용스님)  
불영사, 안보불(100주년사업본부장)  
김명봉양사145만원, 보광불30만원  
▲법파대학발전기금  
신광수(인도철학)74졸, 은혜사주  
지)1천만원(합11,000,000원)  
김장관(동문,SK 건설이사)1백만원  
김희옥(법학과72졸, 수원지검법정직  
참정)

▲1백만원  
김수진(신도) 강중수(신도)  
김호찬(경영학과73졸)  
김호원(경영학과95졸,공인회계사)  
최정현(신도), 우부순(신도)  
구봉희(학부보,구자학부부)  
권기상(신도)  
권미영(신도,경력중요 초등학교 교

▲50만원  
김길성(한외90졸), 김상근(한외91졸)  
김상태(한외94졸), 김세은(한외94졸)  
박명진(신도, 동우건축)  
박연서(신도), 박일원(한외92졸)  
박창조(한외89졸), 박태훈(한외91졸)  
서정준(한외86졸), 송현주(한외94졸)  
이경아(한외91졸), 이구영(한외94졸)  
이우연(한외94졸), 이재중(한외93졸)  
장경서(신도), 정영재(한외92졸)  
정준관(한외91졸)

▲20만원  
박영자  
박영환(사학)(합40만원)  
불교대학원보각묘구  
우경태(신도)  
▲10만원  
김사훈(신도)  
박석진(신도), 박성민(신도)  
박인범(불교대학원), 박재교  
신일성, 안진숙(신도), 원경열(신도)  
원용진(신문방송학과 교수)  
원종현(신도), 이순우(신도)  
이혜진(신도), 임원선(신도)  
임종연(기회공학과 교수)

▲20만원  
김재영(한외90졸), 김상근(한외91졸)  
김상태(한외94졸), 김세은(한외94졸)  
박명진(신도, 동우건축)  
박연서(신도), 박일원(한외92졸)  
박창조(한외89졸), 박태훈(한외91졸)  
서정준(한외86졸), 송현주(한외94졸)  
이경아(한외91졸), 이구영(한외94졸)  
이우연(한외94졸), 이재중(한외93졸)  
장경서(신도), 정영재(한외92졸)  
정준관(한외91졸)

▲1천원  
▲일회헌금수시지원금  
신현은(영광장 리용장)30여원  
▲서림원기념기금  
경주서림원125명대원  
경주학인스님5명동생2백만원  
보경사15백만원, 포항보경사14백만원  
동명불영55백만원, 문수사13백만원  
영남불교대학(우학스님)150만원  
무관스님, 만성산(우용스님)  
불영사, 안보불(100주년사업본부장)  
김명봉양사145만원, 보광불30만원  
▲법파대학발전기금  
신광수(인도철학)74졸, 은혜사주  
지)1천만원(합11,000,000원)  
김장관(동문,SK 건설이사)1백만원  
김희옥(법학과72졸, 수원지검법정직  
참정)

▲1천원  
▲일회헌금수시지원금  
신현은(영광장 리용장)30여원  
▲서림원기념기금  
경주서림원125명대원  
경주학인스님5명동생2백만원  
보경사15백만원, 포항보경사14백만원  
동명불영55백만원, 문수사13백만원  
영남불교대학(우학스님)150만원  
무관스님, 만성산(우용스님)  
불영사, 안보불(100주년사업본부장)  
김명봉양사145만원, 보광불30만원  
▲법파대학발전기금  
신광수(인도철학)74졸, 은혜사주  
지)1천만원(합11,000,000원)  
김장관(동문,SK 건설이사)1백만원  
김희옥(법학과72졸, 수원지검법정직  
참정)

▲1백만원  
김수진(신도) 강중수(신도)  
김호찬(경영학과73졸)  
김호원(경영학과95졸,공인회계사)  
최정현(신도), 우부순(신도)  
구봉희(학부보, 구자학부부)  
권기상(신도)  
권미영(신도, 경력중요 초등학교 교

▲50만원  
김길성(한외90졸), 김상근(한외91졸)  
김상태(한외94졸), 김세은(한외94졸)  
박명진(신도, 동우건축)  
박연서(신도), 박일원(한외92졸)  
박창조(한외89졸), 박태훈(한외91졸)  
서정준(한외86졸), 송현주(한외94졸)  
이경아(한외91졸), 이구영(한외94졸)  
이우연(한외94졸), 이재중(한외93졸)  
장경서(신도), 정영재(한외92졸)  
정준관(한외91졸)

▲20만원  
박영자  
박영환(사학)(합40만원)  
불교대학원보각묘구  
우경태(신도)  
▲10만원  
김사훈(신도)  
박석진(신도), 박성민(신도)  
박인범(불교대학원), 박재교  
신일성, 안진숙(신도), 원경열(신도)  
원용진(신문방송학과 교수)  
원종현(신도), 이순우(신도)  
이혜진(신도), 임원선(신도)  
임종연(기회공학과 교수)

▲20만원  
김재영(한외90졸), 김상근(한외91졸)  
김상태(한외94졸), 김세은(한외94졸)  
박명진(신도, 동우건축)  
박연서(신도), 박일원(한외92졸)  
박창조(한외89졸), 박태훈(한외91졸)  
서정준(한외86졸), 송현주(한외94졸)  
이경아(한외91졸), 이구영(한외94졸)  
이우연(한외94졸), 이재중(한외93졸)  
장경서(신도), 정영재(한외92졸)  
정준관(한외91졸)

▲1천원  
▲일회헌금수시지원금  
신현은(영광장 리용장)30여원  
▲서림원기념기금  
경주서림원125명대원  
경주학인스님5명동생2백만원  
보경사15백만원, 포항보경사14백만원  
동명불영55백만원, 문수사13백만원  
영남불교대학(우학스님)150만원  
무관스님, 만성산(우용스님)  
불영사, 안보불(100주년사업본부장)  
김명봉양사145만원, 보광불30만원  
▲법파대학발전기금  
신광수(인도철학)74졸, 은혜사주  
지)1천만원(합11,000,000원)  
김장관(동문,SK 건설이사)1백만원  
김희옥(법학과72졸, 수원지검법정직  
참정)

▲1천원  
▲일회헌금수시지원금  
신현은(영광장 리용장)30여원  
▲서림원기념기금  
경주서림원125명대원  
경주학인스님5명동생2백만원  
보경사15백만원, 포항보경사14백만원  
동명불영55백만원, 문수사13백만원  
영남불교대학(우학스님)150만원  
무관스님, 만성산(우용스님)  
불영사, 안보불(100주년사업본부장)  
김명봉양사145만원, 보광불30만원  
▲법파대학발전기금  
신광수(인도철학)74졸, 은혜사주  
지)1천만원(합11,000,000원)  
김장관(동문,SK 건설이사)1백만원  
김희옥(법학과72졸, 수원지검법정직  
참정)

유럽단일통화 실시 논단

유로화 출범, 경제회생의 기회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 통화질서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화가 출범하면서 유로화로...

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이며, 영국·스웨덴·덴마크·그리스는 자금사정으로 인해 3-4년 동안 참여를 유보했다.

유로랜드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미국에 비해 근소하게 뒤지지만, 무역규모에서는 두 배 이상 앞선다. 향후 5년 내 나머지 4개국이 통합할 경우 국내총생산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으로 부상할 것이며, 유로화를 통한 역내의 거래가 50-100% 늘면 유로화는 세계 기축통화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국제사회는 왜 국제통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가. 일국의 통화가 국제통화가 되면 그 국가는 통화정책과 통화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비리지(seigniorage)효과와 더불어 저렴한 자금조달 등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달러가 국제통화라 함으로써 이는 미국의 세비리지는 연간 8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저렴한 자금조달에 의한 이익은 연간...

50억-1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축통화국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국내 문제의 해결에 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환율변동 등 대외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유럽연합 15개국 중 13개국에서 화과와 단독 또는 연장으로 정권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경제정책도 분배, 복지에 중점을 두는 사회안정정책에 정상들이 합의함으로써 화과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의 새로운 정책실행 의중에 유로화가 출범했는데, 유로화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유로화 출범에 대비해은 전문가들은 지금이아말로 한국경제 주체들이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충고한다.

한국 정부의 대외 자산과 대외 부채의 90% 이상이 현재는 달러로 표시되었지만, 그 중 상당한 몫을 장차 유로로 전환해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유로와 달러의 환율변동에 따라 상당한 환차손이나 환차이익 발생할 것이다. 출범 초기의 시장확대와 비용 절감으로 유로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못지 않게, 실업과 재정 적자와 정책 미찰 등으로 유로가 약세를 면치 못하리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



황의서 법경제 국제관계학과 교수

도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무역대금 결제에서도 현재 85% 수준을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을 낮추고, 3% 수준인 유럽연합 회원국 통화의 비중을 최소한 유로통화권 국가의 무역비중과 비슷한 15% 수준까지 유로화 결제비중을 높임으로써 달러 약세화에 따른 환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유럽경제권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로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환경이 개선되는 유럽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의 구성(아시아 통화기금(AMF)의 창설을 포함한)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입장에서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길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강대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설

새해아침 동국의 발전을 기원하며

새해 새아침을 맞았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개인마다 다르겠으나 지난날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같은 일일 것이다. 흔히들 한해를 보낼 때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쓴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만큼 이 표현이 피부에 와 닿은 해는 없었을 것이다.

우선 지구촌 각 지역에서는 국가간, 민족간에 전쟁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지구촌의 화악고라 할 수 있는 발칸반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민족과 종교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수 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독일 통일과 대부양된 폴란드가 젊은 새 지도자에게 지리를 돌려 주고 깨끗하게 은퇴한 것이 아름다운 뉴스였다면 필리핀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한 하필탄핵안 통과는 부도덕한 지도자에게 보내는 커다란 경고였다.

국내로 눈을 돌려봐도 지난해는 격변의 한해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야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였으나, IMF의 경제난 속에서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부랑자 아닌 부랑자가 되어 찬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잠을 청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새 정부는 정책 수행에 있어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에 성공하지 못한 채 해를 남기고 있다.

본교 역시 지난해는 미증유의 변화를 겪은 한 해였다. 이전만 불교도들의 숙원이었던 불교종합병원이 기공되었고, 3년 연속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발전의 초석이 되는 일들도 많았으나 송석구 총장의 연임결정으로 인한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등 문제는 치유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교수회에서는 학교교의 민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하여 두 명의 총장후보를 재대로 추천하였으나, 재단은 추천서의 중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불교도들의 숙원 과제인 학내 선거를 두고 학내 각 주체들의 입장은 착잡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차피 치러진 선거결과를 놓고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일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 할 본교의 미래에 결집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선 당사자인 학교와 교수회는 서로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나 이번 일을 보아야만 것이다. 교수회는 통신표표라는 변칙적인 방법까지 사용되어 선거를 치루었으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책임을 솔직히 인식하고 직책해야 한다. 이미 교수들 뿐 아니라 다른 주체들이 내리는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 당국 역시 비록 절대적 참여는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수의 교수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 나도는 징계설 등은 문제 해결의 진정한 방법이 아님을 충고하고 싶다.

우리는 교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게 자리잡을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동국의 발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주어진 분야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교만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특성화시키고 이를 중흥의 바탕으로 삼아야 하였다.

앞으로 새해를 바라보며 동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99 대학언론 탄압

“신문쟁이는 신문을 만들고 싶다”

독자의 알 권리 보장위해 언론탄압 중지돼야

대학내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올바른 학내상황과 사회현상에 대한 알권리 제공을 위해 작업하는 곳이 대학신문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사회는 구조상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나마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대학에서조차 헌법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묵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측은 신문을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대학신문기자들이 어김시 권리를 묵살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학교측의 약권을 들추어 내는 경우, 사회에서 민감하게 논의되는 현상을 거론하는 경우,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판함으로써 학교측에 관한한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학교측은 학생 기자들에게 기사 삭제나 다른 기사로서의 신화를 요구하며, 기자들과의 협회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신문발행을 거부하는 데에도 대학

언론을 탄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남대학교 신문사의 경우는 지난 9월 29일 수의대에서 88년부터 10년간 대학의 목언론에 대부분의 실현용 동물사체를 대학내에 매립한 사실을 보도하려 했지만 학교측에 의해 발행이 중단됐다. 이후 각 언론에서 이 사건이 보도된 후에도 정상발행되는 등 언론탄압의 위험수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도 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사의 경우는 지난 11월 16일 발간예정이었던 1240호가 학교측의 불허로 정상적으로 배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240호에 실릴 예정인 “조선일보를 반대한다”는 사설에 대해 주간교수가 사회적으로 민감하니 삭제하고 다른 기사로 대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원대학교 신문사의 경우 학내 재단비리와 부정이 일목진 서원대 총장의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기사를 지난 6월 24일자에 실을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은 “그런 기사를 게재한다면 각 구성원의 불신만을 조장할 뿐”이라며 발행을 중지했다.



김경일

지했다.

이밖에도 노골적인 편집권 침해로 지난 5년간 정상적인 발행을 중단한 세종대 신문사, 논문을 표절한 교수의 퇴진상황기사를 게재하려다 발행이 중단된 제주대 신문사, 지난 9월 7일 실린 정지수배재제 광고에 대해 학교측은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아직까지 신문발행이 되지 못한 조선대 신문사, IMF이후 ‘일방이 없는 나라’라는 1면 광고를 삭제하지 않아 주간교수가 발행을 중지한 인제대 신문사 등 많은 대학신문

사들이 학교측의 제지로 인해 언론·표현의 자유 및 편집권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자못의 현실이다.

대학신문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생 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학교측은 신문이 단순한 홍보수단이 아니고 독자들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임을 명심하고, 독자들과의 합당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박양우 기자



법인의 일반적 헌장적지 이후, 두달여가 지난 현재 현재 주체들은 평가·철거능성을 끌고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수회는 총장후보추진 선거를 강행해 총치유교수와 조희영교수를 선출, 법인에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총장후보추진 선거에서 당선된 두명의 교수와 총장후보에게 공동질문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 동국발전은 민주주의 복원으로

## 교수회·법인 기존 입장 교수 ... '결자해지' 모습 가져야

"대학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많은 동국인들은 지난 10월 22일 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총장 낙점이 이루어지고 난 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 후로 두 달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학내 재 주체들은 '무효화'와 '철거'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고, 법인은 '합법'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90년의 역사를 넘어 1백년을 준비하고 있는 '동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부끄러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현재 교수회를 비롯한 학내 재 주체들은 그 동안 진행해왔던 집거·철거 능성을 참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은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교수회는 이미 지난해 14대 총장후보 선출선거를 진행, 총치유(총리학) 교수와 조희영(경영학) 교수를 재단에 추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곧바로 추천서를 반려했으며, 교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재차 총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법인은 교수회의 요구에 대해 "이미 결정된 사안을 부정하는 교수회의 요구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법인 권한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교수회는 "총장연임 결정이 학내 구성성원들이 관여와 절차를 무시한 비도덕

적이고 비민주적인 처사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정신회를 기할 수 있도록 두명의 후보 중 한 사람을 빠른 시일내에 총장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교수회와 법인은 기존의 입장을 변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재 주체들의 입장이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교수회는 선거가 끝나 이후 재 주체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나 나머지 재 주체들은 교수회의 선거 또한 법인의 일방적 낙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교수회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학내의 여론은 사분오열되고 있으며, 법인의 연임결정 또한 현 상태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이석종(대학원 입학 박사과정 1학기)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러한 학내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학내 민주주의, 더 나아가 대학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복원과 함께 우리들의 당면과제인 동국발전을 하루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회, 직원노조 등은 법인의 연임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도 이러한 학내 재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게 수렴해



지난 12월14일 교수회는 재단주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신투표로 총장후보추진선거를 진행했다.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야 할 것이다. 또한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현재 눈앞에서 겪어가고 있는 학내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내력'이라고

하는 곳이 다시금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아가는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 총장 후보 당선자 인터뷰



총치유(총리학)교수 조희영(경영학)교수

## "교수회칙대로 사태 해결해나갈 터"

조희영 교수: 총장후보로 선출된 것에 기쁘기보다는 향후 이 난국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됐나 보다는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먼저 생각했으며 명분과 시대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는 교수로서의 양심을 지키면서 토론·협의의 통해 이번 사태를 시정하도록 하겠다.

-이번 교수회 총장후보 추천선거 과정에서 '통신투표'에 대해 학내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교수회칙대로 했다. 학교측에 투표할 설치장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할 수 없이 통신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법률적 유권해석을 적용해 총회의 시·공개념을 확대시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으므로 정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교수선진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후 총장추진위원회 투쟁에서 직원노조·학생회 등과 어떻게 연계해나갈 것인가. =교수·직원·학생 등 3주체 연대가 가장 이상적이다. 현 총장 퇴진 이후 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총장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다시 선거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여긴다.

-법인이나 학교당국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교수회는 현재 두 명의 총장후보를 재단에 알렸으나, 재단에서는 '합법적으로 14대 총장을 뽑아놓았다'라는 명분으로 이를 반려시켰다. 앞으로 교수회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열의는 법인과 현 총장에게 있다. 법인과 현 총장의 적극적 협조자세만이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지, 당선자들이나 교수회는 피동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학생회측에서 총장, 교수, 학생, 직원이 학교 정

적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운영위원회(가칭)건설을 제안했는데.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라 여긴다. 공개행정을 통해 대학은 변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구성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즉, 어느 한 쪽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종합병원 건립명인은. =불교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경제 위기시대에 병원설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 사업계획은 잠정적으로 유보해야 한다. 지금은 IMF관리체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삼성 병원이나 중앙병원도 한도 연간 몇 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병원은 IMF관리체제가 끝난 후 더 모금해서 지어야 한다.

박영실·김미경 기자



교수회의 총장후보추진선거로 선출된 총치유(총리학), 조희영(경영학) 교수를 만나보았다.

-당선소감은. =총치유 교수: 착잡하다. 지금까지 88년 환원민주회투쟁이후 시정되어온 두 차례의 총장직선제 선거를 보면 당시에는 높은 투표율을 독재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많이 변질되었다. 학교당국의 방해로 보지교수와 일부 특정대학의 교수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선거가 잘 될 수 있겠는가.

### 대외관

## 99년에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맞이한 98년은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잇따른 기업의 부도와 퇴출, 정리해고 등으로 실업자와 노숙자는 증가하고, 이것은 금기야는 가정마다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고아원, 아동보호소로 보내지고, 갸니를 굶는 아동만해도 100만명에 달합니다. 인권내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대통령 하에서도 아직 수많은 양심수들이 0.75명의 차대한 감옥에서, 철거촌 주민들은 거렁에서 거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99년에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13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10면에서 계속

로 보이는 그것이 바다라는 게 하진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첫 는 나뭇잎을 흔들면서, 진한 나무 등결을 끊임없이 두우, 분병 뱃고동 소리는 울리고 있었다.

바다 속의 숲, 숲 속의 절, 목탁 소리 보다 나은 뱃고동 소리, 어디서부터 오는 지 모를 그 묘한 울림의 고품이 알루미 늘 창을 두드리는 그의 몸.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던 하진은 선뎀 한 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다. 법당 안에서 사십구재 준비를 하는 듯하던 한 스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하진은 갑자기 죽 돕는 소리에 몸을 떨며 잠잠 할 생각도 못하고, 언제부터인지 비구들 만 보면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는 무의 식적인 습관에 몸을 내맡긴 채 스님의 동작선에 시선을 쫓아내고 있었다.

승복 키 위로 곱게 뻗은 목선, 발을 바 풀 때마다 스님의 고의 부딪는 소리가 서걱서걱, 천둥 소리처럼 울린다. 씩씩한 남새가 바람에 불어온다. '천내일? 아니, 머리 남새 같아. 하진은 은 뿜이 짜 아했다. 시간이 부채살처럼 희아 퍼져 그와의 공간으로 둘러놓는다. 그도 이 바 다가 보이는 어딘가에서 저만 모습을 하고 있겠지. 길게 뻗은 목선 아래에 등을 돌릴 열주알을 매달고, 불거진 목줄대를 움켜쥐며 새벽 벼락을 외고, 파란만 도우 신을 바투 신고 안개를 뿜어마시겠지. 그러다 부채살이 꺾여질 만큼 바람이 불어 오면 나를 생각하겠지, 나를 떠올리겠지. 그래, 그는 지금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범어사에서 나올, 그는 ...나를, 지금

범어사에 있는 그는 나를 알아볼까. 나를 떠나 범어사로 간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나, 그 곳에 가야 하는데, 그 곳에 가서 그를 만나야 하는데, 왜 거기 이르고 있는 걸까.

낮을 놓고 있는 하진의 어깨를 갑자기 매운 손바닥이 찰싹 내리쳤다. 하진은 멍하니 늘어졌던 몸을 추스려 세웠다. 사람들 법당으로 분주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턱이 닿자마자 하진은 비로소 자신이 고개를 찌르고 턱을 놓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귀밑까지 소름이 돌아 올랐다.

"아이구, 아가씨 여기 올라와 있었네. 찻있습유."

"잠이 참 아담하네요."

바람이 뜰게단을 올라선 삼평 여자를 출고 지나났다. 바람에 의해 작 드러난 여자의 뿜이 숨에 차서 울퉁거렸다. 뿜안의 물기가 밖으로 다 빠져나간 듯 여 자는 얼굴이 꺼짐하고 뻘뻘해 보였다. 바람이 휘 불자 그녀 뒤의 나무에서 후두둑, 활방울이 떨어진다.

"내 잠, 아 여머이 했을 판근거리면서 더워할 것 아니야. 이거야 원 입추두 아니구, 거 두렵게 좋네."

"산인데다가 바닷 바람까지 불어서 그 렷겨요. 해가 날 만두 한데....."

"아 해 나면 뭐해. 활방 드센 년 췌그 러진 이마백 배더 보여"

"색자와 연꽃을 든 사람들이 법당으로 둘러싸려나."

"우리 딸인데 저기 저 들에 앉아서 는... 망할 년. 하구 싶은 게 뭐 그래 많 다구. 원진 췌열중일... 그렇게두 삼구 들어, 환장을 했구만..."

삼평 여자가 카아 하며 침을 뱉는데

그 앞으로 웃가지를 들고 지나가던 소복 여자가 울음, 이 쪽을 본다. 부은 눈이나 거친 피부와는 대조적으로 빛살이 그대로 내린 머리가 뒤로 가지런히 묶여져 있고 뿜이 흐르듯 하얀 견이 매끈하다.

"저어, 가족 중에 사십구재가 있나부 조?"

소복 여자의 시선이 무안해 하진은 열 결에 말을 건넸다. 여자는 하진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계속 삼평 여자만 을 쳐다봤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눈가에 착한 눈물이 울렁울렁 쏟아져나올 것 같다. 소복 여자는 초침처럼 일렁이는 눈 을 삼평 여자에게서 전덕히 떼며 말하니 벌어져 있던 입술을 음침거렸다.

"오늘이 ...지 말네이 사십구재 ...맙네 니다."

여자는 고개를 인사를 하고는 법당 쪽 으로 치적처럼 들어가다간 뜰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인 듯한 사람에게 쓰러 지듯 안겼다. 그리고는 아마도 여러번 되 돌이 했을 말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다. 여자의 휘장거리는 몸짓에 하진은 속이 울렁이면서 현기증이 일어났다. 듣고 있던 삼평 여자는 카아, 또 침을 뱉고는 바로 췌어 문였다.

여자의 울부짖음을 숨기를 타고 날아와 하진의 머리를 휘저었다. 하진은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다. 울렁거리는 속이 답답해 발을 옮기는데 밑으로 들쭉난 것이 밟혔다. 그것의 느낌은 발바닥을 췌고 울리와 종아리 알을 세우며 급시에 머리 끝까지 솟구쳤다. 하진은 뒷머리가 붙끈 해지는 동시에 말을 내리다했다. 한쪽 끝 이 텅텅히 빈한 궤단만 지렁이가 스물 스물 밖으로 나와 있는 하진의 발가락을

움으며 요동을 치고 있었다. 그 미끌한 엉거뚱에 하진은 기갑을 하며 발을 털었다. 한쪽 뿜이 터진 채로 짙은 흙을 휘돌고 있는 지렁이를 보자 울렁이던 속이 뒤물리면서 그대로 안의 것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주황빛 구토물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입과 코에서 동시에 터져나와 바닥으로 흘렀다. 한 번 시작된 구역질은 좀처럼 그치기가 힘들었고 고막이 터져 버릴 듯 온갖 소리들이 웅얼거렸다. 여자가 급히 하진의 옆으로 와 닦을 것을 주면서 휘라고 말을 한다. 아마도 하진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말 같았다.

시름한 내가 울어오면서 구토가 멎고 여자가 간재도 눈으로 얼굴을 닦고 나자 하진은 뿜이 그대로 비틀러버린 듯 힘이 빠졌다. 여자는 바닥에 있는 하진의 구토 물에 종이를 덮어놓고는 하진을 다시 기 웃가듯 살폈다. 하진은 목례로 인사를 하고 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찌렀다. 앞 여자의 굵고 질겨 보이는 겹 은 머리털이 부엌에 달랑거렸다. 여자는 아무래도 하진이 고개를 돌려 보고 또 보고 한다. 광배 옆으로 뿜 아서 말은 머리가 마치 검은 열주알처럼 늘어져 있다.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인지 여자는 입술까지 움직거리면서 침 삼키는 시늉을 했다. 묘야 묘야서 침을 삼키 자 먹먹해진 귀가 좀 풀리는가도 싶었다.

고도 때문에 생기는 뿜의 이상이 이렇 게 갑작스럽고 심하게 나타날 줄이야.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진은 자신의 무작 정에 원이 빠졌다. 가방에 여권, 지갑, 시 계만 남고 무작정 떠난 길. 왜 두통야, 소화제 하나라도 챙겨올 생각을 못 했을 까.

창밖으로는 모래 바위가 빗금을 그으며 계속 치웃고 있었다. 열결 내리다보자 바로 아래가 절벽이라 하진은 다시 머리가 아찔했다. 모퉁을 들쳐밟던 한 남자는 온전사를 향해 불안스런 호통을 치고 있고 한쪽의 비구는 눈을 꼭 내리감은 채 열주알을 돌리고 있고 등산화를 신은 사람은 연신 카메라를 들레고 있었다. 이 절벽에서 차가 그만 굴러버릴 것 같아 하진은 고인물과 미르기가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하진은 목이 달랐다. 아무리 건 조한 곳이라고 해도 어쩌면 이렇게 한결 같고 관태로울까. 끝없는 자갈, 모래, 바 위, 조그만 활영수 일 하나라도 볼 수 있다면 모든 고산병이 사라질 것 같았다. 뿜에 일어난 이상은 좀처럼 그그러들

지 않았다. 잠잠해지는가 싶던 머리가 다시 후끈거리기 시작하고 은 뿜이 부풀어 터질 것 같아 하진은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다. 실장 울리는 소리가 빠르게 요 동치며 귀 밖으로 뚫뚫거렸다. 얼마나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일까. 가슴을 누르고 있던 하진의 손등으로 무엇이 뜨끈 떨어 져 내린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찌르자 미 끈한 것이 목을 타고 넘어간다. 코피였다. 하진은 이 모래자갈과 바위 속에서 그것이 유일하게 선명한 색이라고 생각 하면서, 먼 곳으로부터 불어온 고지대의 바람에 자신의 선혈을 흩뿌려내는 것에 아득해지면서, 풍계통에 내려앉은 구름이 다면 모든 고산병이 사라질 것 같았다. 뿜에 일어난 이상은 좀처럼 그그러들

#### 소설부문 본상 수상 소감



최은우(문과대 85)

양치를 했다. 남쪽의 겨울밤에 얼굴이 탄 채 돌아와 내 방 전경 아래 누운지 꼭 이틀, 입에서 는 동베꽃술새가 대신 단내가 나기 시작 하고 나는 문득 치아 밑에서 말고 싶었다. 팔뚝으로 치약거품이 흘러내리도록 오

래오도 양치를 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냄새가 들어있고 또 섞여야 양치를 말할 수 있을가를 생각했다.

때로는 가슴속부터 싸하게 차오르고 싶은 열망에, 때로는 입에서 나는 단내가 견딜 수 없어서, 때로는 긴 길을 떠나거나 오랜 잠을 자기 전에 그날 회개 웃고 싶어서 나는 이 치약 거품들을 타 액과 함께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치약의 맛을 알게 해준 이들, 입냄새 가 나다고 일러준 이들, 그리고 치아가 떨어졌을 때 거만히 자신의 것을 눌러 짜주던 이들이 떠오른다.

수줍음도 목구멍 깊숙한 곳을 췌면엔 사람들이 시린 입김을 뿜어올리는 겨울 이다.

# 동대문학상



### 제36회 학술상 입상작 발표

◇ 인문과학부문	본상 '식물병원균에 길항력을 갖는 <i>Pseudomonas cepacia</i> JY6-10의 특성'	최경달(생지대 응생4), 송현주(생지대 응생4), 조상원(생지대 응생4)	가작 '역사적 문맥에서 보는 안간기 소고'	가작 입상작 없음
본상 입상작 없음			-일연의 조폭 설정이유와 예기 해석의 의미를 점검하며 이호준(사법대 국고3)	
◇ 사회과학부문	◇ 심사위원			
본상 입상작 없음	인문과학부문 박경준(불교대 불교학부 교수) 정대섭(사법대 역사교육과 교수·본사주진)			
가작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모색'	사회과학부문 양영진(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안효중(사과대 정치3)	자연과학부문 김득영(이과대 물리반도체과학부 교수) 박인국(생지대 응용생물학과 교수)			
◇ 자연과학부문				

### 사회과학부문 심사평

심사평에 대해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논문 쓰는 방법의 기초를 세심 강조하고 싶다. 논문이란 무엇 인가? 글자 그대로 필자가 1. 자기의 주장 을 2. 논리적으로 3. 설득하는 것일 게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식과 내용 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형식면에서는 목차를 통해 글 전체의 윤곽을 제시하고, 인용된 남의 글은 반드시 출처를 밝히하여 자기 주장 과 남의 견해를 최대한 간결하게 구분해

### 논문작성 기초없는 빈약한 글 태반

주는 것 등을 들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주 어와 술어가 일치되는 짧은 문장의 반복 을 통해, 논자를 흐리는 불필요한 군더더 기를 과감히 버리고 자기 주장의 요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음모한 여섯 권 모두를 정독했으나 불 행하게도 평가가 생각하는 논문작성법의 기초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빈약한 글 들이었다. 그것들은 자기 주장도 없고, 논 리적이지도 않았으며, 기술은 애매모호했 다. 학점되기 위해 제출한 해로운 보고서, 남의 글을 적당히 짜깁기한 것, 부자

### 양영진

기적인 글은 것도 있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나은 것으로 안효중(정치3)의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부 형태'의 모색'을 들 수 있다. 비교적 시의적 절한 주제를 택해 학부생 수준에서는 많은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문맥이 통하는 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제목부터 어감이 애매 모호하고, 군더더기가 많아 읽히는데도 잘라 내야 논자가 더 분명해질 글이다. 더 나은 글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가작으로 밀어본다.

사회대 사회학과 교수

### 인문과학부문 심사평

먼저, 이번 동대신문사 제36회 학술상 인문과학부문 등도 논문 중에서 학 상 수상작이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법대 국고과 육과 이호준의 '역사적 문맥에서 보는 안간기 소고'가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일 연의 조폭 설정 이유와 예기(禮記) 해석 의 의미를 점검하며' 라는 부제가 붙은 이 논문은 우선 그 주제가 흥미있고 학문 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학문적 기여높은 흥미로운 주제 다뤄

특히 안간기가 만들어진 경덕왕대의 시대상을 고찰하는 물론, '삼국유사'에 경 덕왕 출당사 표현대역'조를 설정하여 결 필한 기록자 일연이 살았던 시대상까지 분석함으로써 안간기의 성격을 한층 구체 적으로 규명하려 한 점은 단연 돋보인다. 는러지 긴장이 조음씩 흐르려드나든가, 자 료의 활용과 해석이 가깝게 매끄럽지 못 하다든가. 문장이 더러 명료하지 못하다든 가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간다면 앞

### 자연과학부문 심사평

'식물 병원균에 길항력을 갖는 *Pseudomonas cepacia* JY6-10의 특성'에 관한 연구논문은 각종 식물병원균에 대하여 길항작용을 보유한 미생물을 분리한 다음, 길항미생물의 식물병원체에 대한 항균력의 조사와 미생물의 동정 및 항균물질의 최적 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최근 유기합성분야의 대량합성과 그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은 식량생 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토양세 식시키고 있는 병원균에 대한 미생물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 유용한 항생질로서 활용가치기대

현재 토양미생물 중에는 식물병원균에 대하여 항균활성물질을 분비하여 천연 미생물 방제제로서의 개발이 가능한 유용한 미생물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선별된 항진균 활성이 매우 높은 JY6-10균주는 Gram-negative이고 항생 제 내성을 보유한 운동성이다. 전자현미경 에 의한 형태적 고찰을 보면 0.4~0.6x1.0 ~1.3um 크기의 균이다. 생화학 반응의 특성으로서 arginine, lactase 등의 활동도에 있어 *Pseudomonas cepacia*로 동정되었다. 특 히 이 미생물은 *Botrytis cinerea* 외 14종 식물병원균과 *Phytophthora infestans*군에 대 한 강력한 항진균 능력을 나타내었다.

### 박인국

또한 항진균 물질 생산에는 peptone과 saccharose가 바람직한 carbon source와 nitrogen source로 조사되었다.

소량의 항진균 물질로도 우수한 방제효 과와 균사생장억제 효과가 있어 식물방제 에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다른 식물병원 진균에 도 도입하여 항진균 활성 및 살균효과 그 리고 안전성 등을 동물실험을 통해 철저 한 검증을 하고 상기한 문제점들을 충족 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유용한 항생물질 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으리라 평가된다.

박인국 응용생물학과 교수



자연과학부문  
본상 수상작

### 제36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 식물병원균에 길항력을 갖는 Pseudomonas cepacia JY6-10의 특성

## I. 서론

오늘날의 식량 생산 증대는 유기합성농약의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이들 유기합성농약에 대량 사용함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변화하고 항생제내성 미생물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물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1,12,31).

특히, 식물병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수확의 감소뿐만 아니라 병원균이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에 의해 인축(人畜)이 강한 독성 피해를 받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1). 따라서 천연 저독성 농약의 개발이 절실한 요구된다. 하지만 실용화된 천연물 항진균제는 그 종류가 매우 적다.

이러한 새로운 항생제를 얻으려는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뉘는데, 기존 항생제의 구조를 변화시켜 항균력을 높이거나 내성균주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얻으려는 시도와 자연생태계의 미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생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다(3,14,21,24). 그러나 기존 항생물질의 구조를 변경하는 연구는 기술적 애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자연 생태계에 서식하는 신종의 미생물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미생물 자원의 대사산물 중 항균활성을 지닌 물질들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6,7,8,9,10,11,20,23).

인체 및 농작물에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으로서 진균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 병원성 진균을 방제하기 위한 방법은 항진균제를 농작물의 염면에 살포하거나 길항미생물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방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24). 특히 병원성 진균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는 길항미생물을 토양에 뿌려주거나, 식물의 종자 또는 뿌리표면에 처리하여 증오제로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고 식물의 생육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서, 농약에 비해 개발에 필요한 시설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으며 토양에 대해 길항미생물의 종류가 풍부하여 연구대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용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15,21,24).

식물병 방제를 위한 길항 미생물로는 Trichoderma spp., Pseudomonas spp., Streptomyces spp., Agrobacterium spp., Bacillus spp. Myxococcus spp.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21,22,23,33). 식물병원균에 대한 길항미생물의 길항작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병원균에 유해한 항생물질을 생산하여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병원균의 포자 또는 균배와 같은 휴면기구의 발아를 억제하는 것, 둘째, 근면에서 식물이 분비하는 대사물질 중 토양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에 대해 병원균과 경쟁하거나 토양에 존재하는 철 이온과 같은 무기물을 병원균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셋째, 병원균에 기생하여 병원균을 분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3,13,15,26,34).

항생물질을 분비함으로써 길항작용을 하는 미생물은 대부분 방선균 또는 세균이며, 이 중에서 Pseudomonas과 Bacillus에 속하는 세균들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9,13,16,17,25). 최근 Pseudomonas cepacia 균주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P. cepacia는 Phenylpyrrole계 항진균물질인 pyrrolnitrin, aminopyrrolnitrin, 2-chloro-aminopyrrolnitrin 등과 Pseudomonas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6,17).

본 연구에서는 각종 식물병원균에 대한 길항작용이 강한 미생물을 분리하여, 이 길항미생물의 식물병원균에 대한 항진균능력 조사와 동정, 항균물질의 최적 생산 조건을 찾기 위한 생리실험을 수행하였다.

## II. 재료 및 방법

### 1. 채집토양의 특성 조사 및 길항세균의 분리

#### 가. 토양의 특성조사

김포군 대백 2리에 소재한 소나무의 주변 토양을 지면으로부터 10cm내에서 채취, polyethylene bag에 넣어 4°C에 보관하였다. 토양의 특성요인으로서 pH, M.C(Moisture contents), O.M(Organic Matter)을 측정하였으며 토양의 pH는 [토양:중류수(pH7.0)]의 비율(W:V)을 [1:5]로 하여 160rpm에서 1시간 동안 shaking한 후 측정하였다. M.C는 105°C의 dry-oven에서 12시간 동안 처리 후 weight를 측정. O.M은 4500°C의 전기로에서 4시간 동안 연소처리 후 측정하였다.

#### 나. 길항세균의 분리

채집한 토양에서 길항성을 띄는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 King's B Agar 배지와 N.A 배지에 희석배양법에 따라 형성되는 세균 colony 수를 40-80 cfu(colony forming unit)/petri dish로 조정된 다음 Botrytis cinerea의 포자현탁액을 각각의 배지에 분무접종하였다. 분무후 48시간 뒤,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colony를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20, 21).

### 2. 길항세균의 동정

#### 가. Gram's stain

분리된 세균을 Crystal violet으로 염색 후, Gram's Iodine으로 1분간 염색, 96% EtOH로 탈색 후 Safranin으로 후염색하여 세균의 형태 및 Gram적 특성을 조사하였다(18).

#### 나. motility test

Semisolid media(Nutrient broth containing 0.4% Agar), 28°C incubator에서 배양하면서 균이 지리는 동안 점층된 선이 변하는 형태를 관찰하면서 motility를 조사하였다(29).

#### 다. 항생제 내성조사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Streptomycin sulfate 18.8%, Oxytetracyclin 1.5%가 함유된 아그리마이신(성분화합)을 50ppm농도로 KB배지에 첨가하여 colony 형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 라. 전자현미경에 의한 형태적 관찰

분리된 길항세균의 형태관찰을 위해 28°C, King's B Agar 배지에서 3일간 배양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S-2460N, HITACHI, Japan)으로 관찰하였다(8,23).

1) 1차 고정 : 2-4hr at 4°C with Karnovsky's fixative(2% parafor-maldehyde and 2% glutaraldehyde in 0.05M sodium cacodylate buffer(pH 7.4))에 침지하여 4°C에

- 서 2-4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 2) 세척 : 15min at 4°C, 3 repeats with 0.05M sodium cacodylate buffer(pH 7.4)로 4°C에서 15분 동안 3번씩하여 세척하였다.
- 3) 2차 고정 : 2-4hr at 4°C with 1% osmium tetroxide in 0.05M sodium cacodylate buffer(pH 7.4)로 4°C에서 2-4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 4) 세척 : D.W로 상온에서 2번 세척하였다.
- 5) 탈수 : EtOH의 농도를 점증(30, 50, 70, 80, 90%)하면서 상온에서 15분씩 탈수시킨 후 100% EtOH로 상온에서 15분간 3번 최종탈수 시켰다.
- 6) 건조 : 15min at room temperature, 3 repeats with 100% HMDS (Hexamethylsilazane) 상온에서 15분간 3번 처리 후, 건조시켰다.
- 7) 처리된 시료를 금박을 입힌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 다. 생화학적 반응 조사

길항세균의 Aerobic, Microaerophilic 조건에서 각각 생화학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GNI(Gram Negative Ident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각각의 영양원별 생화학적인 반응을 확인, Bergey's manual(28)과 비교하여 세균을 동정하였다(23,24).

### 3. 길항세균의 길항력 조사

#### 가. 각 식물병원균과의 대체배양

분리한 균주 JY6-10의 항진균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각종 식물병원균들과 대체배양을 하였다. 대상 식물병원균으로는 Alternaria alternata, Botrytis cinerea, Botryosphaeria dothiorella, Dorthiella mali, Colletotrichum graminicola, Elsinoe ampelina, Fusarium oxysporum f. sp. cucumerinum, Fusarium oxysporum f. sp. lycopersi, Glomerella cingulata, P. drechsleri, P. capsici, P. infestans, Phytophthora cactorum, Rhizoctonia solani, Sclerotium rolfsii이었다. PDNA plate에 각각의 식물병원균과 Pseudomonas cepacia JY6-10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접종한 후, 25~28°C incubator에서 3~5일간 배양한 후, 저지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억제된 균사의 형태를 니킴(Nikom, OPTIPHOT-2, Japan)으로 관찰하였다.

### 4. 길항세균의 배양적 특성

#### 가. 길항세균의 Growth curve 조사

nutrient broth에서 28°C, 3일간 배양한 배양액을 점증임으로 하여 배지당 1ml씩 집종하여 28°C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면서 2시간 간격으로 배양액을 채취 Baush & Lomb Spectronic 20 spectrophotometer로 O.D(Optical Density, T=100%)를 측정하여 Growth Curve를 조사하였다(24).

#### 나. 길항세균의 영양원리 조사

여러 종류의 질소원 및 탄소원 배지를 조성하여 28°C, 150rpm, 72시간 배양하여 배양액을 포자현탁액(Botrytis cinerea)에 Screening하여 각 영양원 중에서 최대의 inhibition zone을 형성하는 것 즉, 항균물질 생산이 가장 좋은 영양원을 선별하였다(24).

#### A. 질소원배지 : 기본배지(pH 7.0)를 조성한 후 각 질소원을 15g/l 농도로 첨가한다.

기본배지 : Glucose 30g/l, MgSO4 · 7H2O 0.5g/l, CaSO4 1g/l, CaCO3 6g/l

#### 각 질소원 : Beef extract, Peptone, Polypeptone, Protose peptone, Bacto-peptone Soytone, Tryptone, Yeast extract

#### B. 탄소원배지 : 기본배지(pH 7.0)를 조성한 후 각 탄소원을 30g/l 농도로 첨가한다.

기본배지 : Bacto-peptone 15g/l, MgSO4 · 7H2O 0.5g/l, CaSO4 1g/l, CaCO3 6g/l

#### 각 탄소원 : D(+), Galactose, D(-) Fructose, D(+), Glucose (Monohydrate), Starch Dextrose, Anhydrate, Maltose, Monohydrate, Saccharose, Lactose

C. 포자현탁액 : B. cinerea를 PDA plate, 25°C에서 15일간 배양 후, 균사가 다 자란 배지에 멸균수 15ml를 넣고 멸균된 시야스크로 부드럽게 긁어 포자를 채집한다. 이 용액을 5000g에서 원심분리, 포자만 수확, 멸균수로 2회 Washing, 포자현탁액을 만들어 Hemoctometer로 포자수를 1.06×108spores/ml로 조정, 포자현탁액을 조성하였다(30).

### 5. 항진균물질의 추출 및 최적저해농도 조사

#### 가. 길항물질의 추출

길항세균을 nutrient broth에 shaking incubation 한 다음 PDNA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28°C incubator에 3일간 배양한 다음 세균이 자란 배지를 끊어서 100% MeOH에 2일간 상온에서 침지 시킨다. 이 용액을 11000g에서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취하여 규조토로 filtering 시켜 그 여과액을 농축기에서 감압농축시켜 MeOH를 다 날려버리고, 농축액이 진하게 되고 flask 벽에 붙으면 50% MeOH에 녹여서 물만 남기고 alcohol 성분은 모두 제거한다. 그 다음 freeze drying시켜 powder를 만들어 낸 다음 냉동실에 보관하여 실험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어 사용하였다.

#### 나. MIC(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test

위에서 얻어진 powder의 항균력을 조사하기 위해 최소사상장억제농도를 측정하였다. Botrytis cinerea를 PDA 평판배지, 25°C incubator에서 5일간 배양하여 Cork borer로 일정크기(φ1cm)의 Slice를 만들어 항균물질이 농도별로 희석된 배지 - 추출된 항균물질을 50% MeOH에 농도별로 희석한 다음 일정량(10ml)의 PDA에 희석시켜 배지를 조성-에 올려놓아 균사생장이 억제되는 최소농도를 측정하였다.

## III. 실험결과

### 1. 토양의 특성 조사 및 길항세균의 분리

채집한 토양은 pH4.5의 산성토양이었고 M.C(Moisture contents)는 35.55%, O.M(Organic Matter)은 9.99%로 나타났다. 토양으로부터 다양한 세균이 분리되었다. 그 중에서 길항력이 있는 3종의 세균 AS, JY7-6, JY6-10을 선별하여 각 식물병원성 진균과의 대체배양

을 한 결과 JY6-10균주가 가장 항진균활성이 뛰어났다. (Fig 1.)

### 2. 길항세균의 동정

선발된 JY6-10균주는 colony의 색은 yellowish였고, 형태는 circular였다. 또한 Gram negative, 간상세포로 0.4~0.6×1.0~1.3μm크기로 운동성이 있고(Table 1, Fig 5), Oxidase 양성, catalase 양성으로 Pseudomonas속의 특성을 보였다.

이 균주는 초기적 환경에서 Glucose, Acetamide, Citrate, Malonate, Lactose, Mannose, Mannitol, Xylose를 이용할 수 있었고, Esculin, Urea, TDA(Tryptophane DeAminase), Polymyxin D는 이용하지 못하였다. 미호기적 환경에서 Adonitol, Arabinose, Lysine은 이용할 수 있었고 Raffinose, Sorbitol, Sucrose, Inositol, p-Coumaric acid, ONPG(β-Galactosidase), Rhamnase, Glucose, Arginine, Ornithine은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H2S는 생산하지 않았다.이 성과 같은 형태학적 성리특징은 Ballard등(4)의 문헌 및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28)에 기재된 P.cepacia의 특징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균주 JY6-10은 다음 arginine, adonitol, 및 lactose의 이용상에 있어서 상기의 문헌에 기재된 특징과 상이하였다(Table 1.2., Fig. 5).

### 3. 길항세균의 길항력 조사

P. cepacia JY6-10의 항진균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물병원균들과 대체배양을 한 결과 P.cepacia JY6-10은 Alternaria alternata, Botryosphaeria dothidea, Elsinoe ampelina, F. oxysporum f. sp. cucumerinum, Glomerella cingulata, Phytophthora drechsleri, P. capsici, Rhizoctonia solani, Sclerotium rolfsii에 항진균능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Dorthiella mali, Colletotrichum graminicola, Botrytis cinerea, F. oxysporum, f. sp. lycopersi, Phytophthora, infestans 등에 강한 길항능력을 나타냈으며 P. cactorum에는 길항력이 없었다.(Fig 2, 3.) 특히 억제된 B.cinerea의 균사를 관찰한 결과 정상적인 균사 (Fig 4. a.)와는 달리 swelling하거나 lysis되어 균사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b.).

### 4. 길항세균의 배양적 특성

#### 가. growth curve

P. cepacia JY6-10균주는 배양 30시간까지 대수적인 성장을 계속하였으며 이후에는 최대치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 나. 길항세균의 영양원리조사

P. cepacia JY6-10 균주의 항진균물질 생산에 미치는 탄소원과 질소원의 영향을 조사하였다.단일 질소원에서는 peptone을 첨가할 때 항진균활성 능력이 가장 높았고, tryptone, yeast extract, beef extract, soytone를 첨가할 때에도 항진균 활성능력이 좋았다. 그러나 질소원을 첨가하지 않은 기본 배지는 효과적이지 못 하였다. 단일 탄소원으로는 saccharose가 가장 좋았고 maltose, starch, lactose, galactose가 좋았다. glucose, dextrose, fructose는 탄소원을 첨가하지 않은 기본배지와 거의 비슷한 항진균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4.5.).

### 5. 항진균물질의 추출 및 MIC test

P.cepacia JY6-10균주의 배양액 중에 함유된 항진균물질을 MeOH로 추출하여 evaporator로 농축한 후 freeze dryer로 흰색의 powder를 얻었다. 추출된 powder를 1/100, 1/200, 1/400, 1/600, 1/800, 1/1000, 1/1500, 1/2000, 1/2500, 1/3000로 희석시켜 PDA배지에 첨가했을 때 1/3000까지 균사 생장 억제 능력을 나타내었다(Fig 7.).

Table 1. Characteristics of Pseudomonas cepacia JY6-10.

Cell type	Rod-shape
Cell Size(μm)	0.4~0.6×1.0~1.3
Form of colony	circular
Color of colony	yellowish
Gram's stain	negative
Motility	positive
Antibiotics susceptibility	resistance
Oxidase reaction	positive

Table 2. Characteristics of Pseudomonas cepacia JY 6-10 identified by GNI Kit.

Culture condition		
Aerobic	reaction	Microaerophilic reaction
Glucose (Oxidative)	+	Raffinose -
Acetamide	+	Sorbitol -
Esculin	+	Sucrose -
Urea	+	Inositol -
Citrate	+	Adanitol +
Malanate	+	p-Coumaric +
TDA	+	H2S production -
(Tryptophane DeAminase)	-	-
Polymyxin B	-	ONPG (β-Galactosidase) -
Lactose / 10% Lactose +	-	Rhamnase -
Mannose +	-	Arabinose +
Mannitol +	-	Glucose -
	-	(Fermentative)
Xylose	+	Arginine -
		Lysine +
		Ornithine -

Elapsed time ; 18hrs, + ; positive reaction , - ; negative reaction

# 제36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Table 3. Antifungal activities of *Pseudomonas cepacia* JY6-10 against various plant pathogens.**

Plant pathogens	Plant disease	Size of clear zone(mm)
<i>Alternaria alternata</i>	딸기검은무늬병	13.0 ± 1.2
<i>Botrytis cineria</i>	잣빛곰팡이병	17.6 ± 1.5
<i>Botryosphaeria dothidea</i>	사과검무늬썩음병	16.0 ± 1.5
<i>Colletotrichum graminicola</i>	호밀탄저병	19.3 ± 2.3
<i>Dorthiorea mali</i>	밀썩음병	22.3 ± 1.2
<i>Elisnoe ampelina</i>	포도나무새눈무늬병	11.2 ± 6.5
<i>Fusarium oxysporum</i> f. sp. cucumerinum	오이담글썩음병	9.3 ± 1.2 F
<i>oxysporum</i> f. sp. lycopersi	토마토시들음병	16.3 ± 1.5
<i>Glomerella cingulata</i>	포도탄저병	12.6 ± 2.3
<i>Phytophthora drechsleri</i>	수박담글썩음병	14.9 ± 3.5
<i>P. capsici</i>	고추썩음병	7.5 ± 2.6
<i>P. infestans</i>	감자썩음병	11.4 ± 1.5
<i>P. cactorum</i>	사과썩음병	0.0
<i>Rhizoctonia solani</i>	수확물썩음병	10.4 ± 0.9
<i>Sclerotium rolfsii</i>	모락썩음병	15.3 ± 2.3

The antifungal activities of *P. cepacia* JY6-10 were checked after incubation on PDA media at 25°C for 5 days.

**Table 4. Effect of Nitrogen source on antifungal activities against *Botrytis cineria***

Nitrogen source	Diameters of inhibition zone(mm)
Basal medium	0.0 d
Peptone	21.3 a
Protease-peptone	14.3 c
Trypton	18.7 b
Soyton	16.3 bc
Beef extract	15.3 c
Yeast extract	16.0 bc
Nutrient broth	16.7 bc

The antifungal activity of *P. cepacia* JY6-10 was checked after 5 days incubation in media containing 15g/l of each nitrogen at 26.5°C.

**Table 5. Effect of Carbon source on antifungal activities against *Botrytis cineria***

Carbon source	Diameters of inhibition zone(mm)
Basal medium	10.3c
Glucose	9.7c
Dextrose	9.7c
Maltose	24.7b
Galactose	15.3bc
Saccharose	27.7a
Starch	20.0bc
Lactose	18.3bc
Fructose	10.7c

The antifungal activity of *P. cepacia* JY6-10 was checked after 5 days incubation in media containing 15g/l of each carbon at 26.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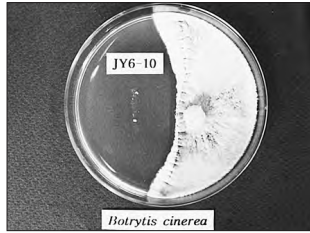


Figure 3. Antagonistic inhibition to mycelium growing by JY6-10 against *Botrytis cineria* incubated at 25°C, for 5 days, on PDA p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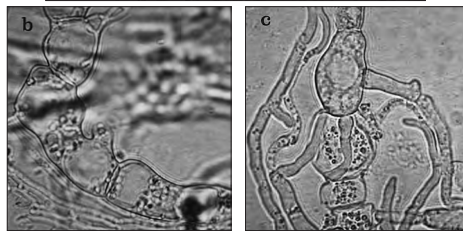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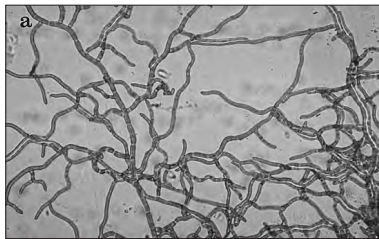


Figure 4. Antagonistic activity of the isolates against *B. cinerea* hyphae on PDA plates. (Nikon, OPTIPHOT-2, Japan)

- a. Normal hyphal branching of *B. cinerea*. (×100)
- b. Abnormal hyphal branching caused by cell wall lysis. (×400)
- c. Abnormal hyphal branching caused by swelling.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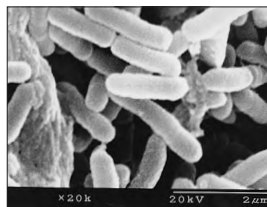


Figure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P. cepacia* JY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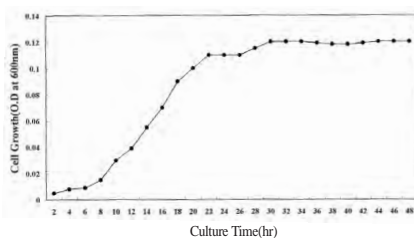


Figure 6. Culture profile of *P. cepacia* JY6-10. *P. cepacia* JY6-10 was cultured in nutrient broth at 28°C, 250r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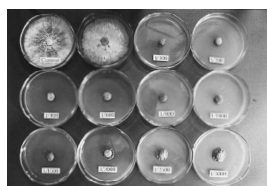


Figure 7. The Result of MIC Test

## IV. 고찰

토양미생물들 중에 식물병원진균에 대해 항균활성물질을 분비하여 천연물 항진균제로서의 개발에 유용하리라 여겨지는 미생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19,32). 이에 속하는 미생물로는 *Pseudomonas*, *Bacillus*, *Streptomyces* 속들이 있으며

(2,8,17,24).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분리하여 본연구에 사용된 길항세균은 *Pseudomonas cepacia*로 동정되었으며(Fig. 5), 식물병원진균에 특이적인 길항력을 갖고 있었다. 다양한 병원균에 대해 종합적으로 길항력을 갖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Figure.2).

또한 항균력의 증가를 위해서는 배지에 질소원과 탄소원을 첨가하여 주는 것이 좋았으며, 특히 질소원은 peptone이 항균활성 능력이 가장 좋았고 탄소원은 대체로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한 항균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P. cepacia* JY6-10균주는 특정한 질소원을 어떤 종류든 탄소원으로 영양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4,5). 그리고 mycelium의 현미경 사진을 보면 길항균이 mycelium에 접촉된 후 swelling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P. cepacia* JY6-10이 분비한 항균물질이 균사를 swelling시킴으로써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실험에서 screening 대상 균으로서 *B. cinerea*를 이용하였는데(Fig.4), 이 병원균은 양말피, 오이, 감넝, 상추, 사과나무, 포도나무, 배합, 국화 등 많은 식물의 열매, 잎 또는 줄기에 발생한다. 그리고 포장에서 본 만년나리 열매의 저장 중에도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다(27, 30).

또한 근래에 와서는 온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습도가 높은 하우스 재배에서 대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하우스는 환경조절이 잘 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방제는 사용이 어렵고 주로 약제 방제에 의존한다. 하지만 내성균이 출현하여 프랑스의 포도산지나 일본 등의 이체시설 등의 원예산지에서는 약제방제효과 저하가 확인되고 있다(27,31). 그러므로 보다 좋은 약제를 지니는 약제를 개발하는 것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 일본, 유럽의 유명 농약회사들이 *B. cinerea*에 의한 잣빛곰팡이병을 살균제 1차 screening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27). screening을 통해 항균물질과 식물병원진균 사이에 어느정도 거리가 존재해도 강한 균사생장 억제현상을 보였으며, MIC test에서는 1/3000정도로 희석하여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Figure.7). 이는 소량의 항진균물질로도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균사생장억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식물병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Pseudomonas cepacia* JY6-10은 잣빛곰팡이병방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균추출물을 이용하여 다른 식물병원 진균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안정성,항진균활성, 살균효과에 대한 철저한 동물실험을 통해 인류의 진균병 치료를 위해 유용한 항생물질로서의 활용가치도 높이고 하겠다. 앞으로도 토양속에 풍부한 유용 미생물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더불어 환경과 인류에 무해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V. 적 요

경기도 김포지역의 pH 4.5, M.C가 35.55%, O.M이 9.99%인 토양에서 길항능력이 있는 JY6-10, JY7-6, As 등의 균을 분리하였다. 그 중에서 항진균활성이 가장 높은 JY6-10균주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선발된 JY6-10균주의 동정결과는 Gram-negative이며,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운동성이 있었다. 전자현미경에 의한 형태적 관찰을 통해 크기가 0.4~0.6×1.0~1.3µm인 간균이라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생화학적 반응을 알아 보기 위해 GNI kit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킨 결과, 99% *Pseudomonas cepacia*로 동정되었으며 arginine, adonitol, 및 lactose의 이용성에 있어서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에 기재된 특성과 상이하였다.

*P. cepacia*는 *Botrytis cineria*의 14종의 식물병원진균에 길항력을 나타내었고, 특히 *Phytophthora infestans* 등의 균에 강한 항진균능력을 나타내었다. *Pseudomonas cepacia* JY6-10은 시간에 따른 배양특성 특성은 6시간 후부터 30시간까지 logarithmic phase를 나타내었고, 32시간 후부터 stationary phase를 나타내었다.

항진균물질 생산에 미치는 탄소원과 질소원의 영향은 각각 peptone, saccharose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Pseudomonas cepacia* JY6-10균주의 배양액을 MeOH로 추출, 농축하여 동결건조시킨 결과 광학 powder를 얻었고, 얻어진 powder의 항진균능력을 test하기 위해 MIC test를 실시하여 최소억제농도를 1/3000로 결정하였다. *Pseudomonas cepacia* JY6-10은 다양한 식물병원진균에 대한 항진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어 식물병의 생화학 방제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 자연과학부 본상 수상 소감



최경환 · 송현주 · 조상운(생재대 이승4)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본상까지 받게 되니 지난 1년간의 엄청난 시간들과 많은 고마운 분들이 생각난다. 실험대상의 특성상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을 때문에 수업이 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그만큼 실험기간도 늘어났다. 그리고 한 논문이 세 명이나 참여하게 때문에 남들은 여유있었다고 생겼지만 저자만 모르면 오히려 서로 바빠서 실험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예상하지 않았지만 가끔 일어나는 의견 충돌로 서로 예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힘든 기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다. 대학 4년간 실험 수업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소중한 실험체회를 하고 거기에 맞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실험과정 하나하나를 정성들여 하고, 그리고도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했다. 물론 처음에는 뜻하지 않게 너무나 결과가 안 나와서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지쳐서 짜증도 났다.

이 실험을 하면서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생물에 대해 보다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끈기와 여유는 것도 다시 배웠다.

이 실험을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이 컸다. 특히 4년이란 짧은 대학 생활 동안 늘 인자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르쳐주신 이인용 교수님, 늘 술선수범하시며 관심있게 지켜보시며 격려해 주신 이해홍 교수님, 김혜영 교수님, 박인국 교수님, 김주필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후배들을 위해주시는 분이얼, 총철이형, 천사같은 영규형, 일업연구원의 가강형 선생님, 동물들의 강제원 선생님, 기원이형, 동규형, 늘 선배들 앞에서 힘이 되어준 미생물실 후배들, 은경, 은희, 소영, 향민, 홍일, 정희, 은영, 윤희, 현영이 그리고 금강초등학교 후배들, 사제의 학군이, 진원이, 동환이, 진환이 이외에도 응원과 격려가 이어 오든 이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보다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욱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대학 4년간의 경험 중 잊지 못할 소중한 체험이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지식들을 위해 대학 4년 동안 격려와 열려로 보살피고 주신 부모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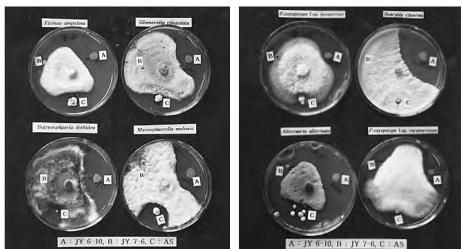


Figure 1. Antagonistic inhibition to mycelium growing by As, JY6-10, JY7-6 with various plant pathogens incubated at 25°C, for 5 days, on PDA pl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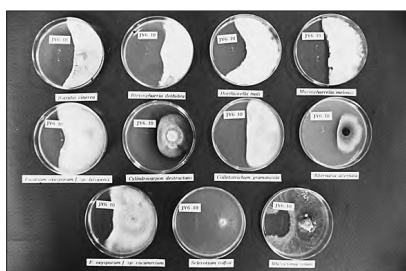


Figure 2. Antagonistic inhibition to mycelium growing by JY6-10 against various plant pathogens incubated at 25°C, for 5 days, on PDA plates.

# 탈수습기

## 열정으로 지켜야 할 대학언론의 순수성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으로 찾아가리라



이미숙(사대대 사회과학계열) 기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7개월간의 수습기자 생활 속에서 버팀목을 찾았기 때문이다.

‘열정.’ 사회부를 맡으면서 여러 집회에 참가했다. 몰랐기 때문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빈민, 노동자, 학생들의 집회들. 기상연론이 자본의 날개를 달고 중화무진 불의와 정의를 오갔다면 대학언론의 순수성은 학생기자의 열정으로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손에 들린 취재수첩에 힘이 실린다.

‘의무와 책임.’ 처음에 기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가 기자가 된 이유를 물더라도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그 안에 포함된 것은 무책임과 물인정이라고 느껴지기에.

‘오기.’ 이 또한 기자 생활 속에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처음 취재한 날, 어눌한 발투와 어색한 표정을 눈치챈 취재원이 수습기자가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당황히 대응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때 기자로서 한없이 부끄러웠다. ‘강해지리라, 독해지리라, 그리고 더 나아지리라...’ 가슴속에 오기를 키워갔다.

지금까지의 수습시절이 말끔거리며 지나가야 하는 교차역이었다면 지금은 지나가는 열차를 위해 잠시 멈춰야 하는 신호대기 구역에 서있다.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다짐해 본다.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을 찾아가자고 하고,

이미숙기자

회기에는 전철과 철도 선로가 함께 있다. 따라서 청량리역까지의 한 구간은 신호대기로 인해 긴 시간이 소모되기도 한다.

5월 23일, 기자가 되기 위해 학생회관 지하 신문사 문을 연 순간부터 내 인생도 교차역을 향한 뾰족 않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신문사에 적응해 갈수록 스무 해 동안 ‘나’를 규정지었던 사고와 행동에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타인의 눈길을 의식하며 소극적으로 살아온 내가 이제는 솔자리에 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낯선 사람에게 너스레를 말을 걸어보기까지 한다.

크게 버리는 자가 크게 깨닫는다고 했던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변화일지라도 그것 또한 ‘나’를 구성하는 일부이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 아름다운 동국 청년에게 말하나 건강에

얼마전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를 보았다. 한국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후술근하게 웃기거나 아비한 감간벌 같은 남성 캐릭터가 아닌 멋진 남성스타-정우성과 이정재의 이탈적 매력을 마음껏 살린 영화여서 ভাল 했다. 그 중에 나오는 이정재의 명대사중 이런 게 있다. “요즘 개나 소나 다 대학가는데... 그게 뭐냐? 난 대학 안가. 그게 개성 있잖아?” 맞는 말이다. 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거리에 나가보면 20대 교만교만한 젊은이들은 다 대학생인 것만 같다. 게다가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지성, 교양, 기품 있는 매너를 갖춘 젊은이라는 신분보장이라는 말도 그리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개나 소나 말처럼 누구나 다가는 대학에 졸업장 따러와서 대충 보내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일이다. 대학시절이야말로 인생에서 특색을 누리는 축복받은 시절이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회에 나가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극은 바로 그런 대단한 가치를 자신이 누리는 동안에 실감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한국처럼 책값이싼 나라에서 대학생이 돈이 아까워 교재조차 안사면서 비싼 커피값과 이동통신료는 마음대로 쓰는 것이나,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생활보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통해 얻은 자유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우둔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온 이들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대학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대학시절을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단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위해 다음 세가지들 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대학시절은 대단한 성공이다. 우선 일생을 두고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만나는 것. 속마음을 털어놓고 인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가 아니다)를 다섯명이라도 사귀는 것.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영화 같은 인류의 선배가 남긴 유산이라는 점에서 작품을 1백편정도 독파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 세가지는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만난 일생을 존경할 스승이 내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것인데, 이 말은 경량상 정말 맞다. 세상이 부패하고 보수적이고 답답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부당한 차별에 분노하더라도 그것이 주목되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늘 그런 악들과 맞서 싸우기위해 자신을 강화면서도 선하고 현명한 존재, 실력있는 지적인 존재로 단련시키는 것. 그러하여 개나 소나 한 마디씩 하는 세상의 권언으로부터 자신을 뜻 굶쳐나가는 일. 바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대학시절이다.



유지나 예술대 연극영상학부 교수

## 김영철 교수 가 권하는 책



### 중국사의 서스템이론적 분석

중국은 서양보다 왜 낙후되었는가 라는 문제의 제기는 바로 80년대 중국이 축의 정막을 겪고 세계무대에 재등장하면서 중국 자신의 낙후된 위상을 인식하게 되면

서 비롯된다. 이 문제는 다시 중국의 봉건사회는 왜 2천년이나 지속되었는가 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책에서 중국학자 김관도는 이 문제를 시스템 이론으로 풀이한다. 그는 시스템 이론을 원용하여 중국 봉건 사회의 장가지속은 왕조의 주지적 붕괴(대동란)와 재생을 통해 그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옛 구조를 회복하는 초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시스템 이론은 우리에게 향후 중국과 한국의 역사나 사회진체를 통찰하는데 색다른 인목을 제공한다. 도서출판 신원, 정가-6천원

### 중국의 붉은별

이책은 당시 31세였던 미국 캔자스 출

신 기자 에드가 스노우가 비발리에 목숨을 걸고 중국의 서북지역에 봉쇄된 홍군(중국 공산당 군대)의 기지를 탐방하여 1996년 당시 전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홍군의 실상과 지도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작성한 보고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보고문에 그치지 않고 모택동, 주엔래, 주덕, 광덕회, 하푹 등 중국혁명 지도자들의 이력을 하나의 일관된 역사로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의미와 그들의 운동이 결국은 중국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암시한 예언서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중국 현대사나 현대사회를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필독서이며, 이념과 개인역사와 개인의 관계를 음미하며 독서할 필요가 있다. 두레신사, 정가-5천5백원

### 산에는 꽃이 피네

이 책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법정스님이 법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이 책의 내용처럼 여백과 절제와 단순함이 단아하게 드러나고 있다.

“때로는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비 온 뒤의 힘찬 물결처럼, 때로는 대나무 숲에 걸터앉아 내리는 새까만처럼, 자신의 말씀이 우리를 문득 고요한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한다.” 이책의 글들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그리고 넘쳐나는 물건들에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조용히 자기 내면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 하는 소중하고 맛깔스런 정신식 양식이다.

동국나라, 정가-7천원

# 영상매체비평

## 광고편 가족애를 다룬 광고들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고자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가족뿐이다”



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대량실업과 임금 삭감 등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우리의 생활은 그야말로

어려운 연속이다. 이런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층 역시 월급쟁이 서민들일 것이고 바로 이들은 광고에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목 집단이며 소비자들이다.

IMF 이후 생활의 변화 중에 두드러진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것은 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비의 위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솔사라도 줄게 되고, 주부들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여념이 없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어떨까. 오늘 바로 열지라도 앉아 함께 일하던 동료들 내일이면 못보게 되고,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회사도 불황을 핑계로 언제 감원의 시퍼런 칼자루를 들이밀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시대의 어려움이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만해도 가족을 몰보지 않고 오직 회사일, 자기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이 사회의 커다란 덕목이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은 오늘날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 생각했던 그곳에는 철저히 경제와 생존의 원칙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주의의 부각은 물론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머니 사정으로 집 밖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그 시간만큼 가족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요즘 광고를 보면 이런 가족간의 사랑을 소재로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지

는 게 요즘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통해 위안을 받듯, 광고도 이런 사랑의 의미를 제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간의 사랑을 소재로한 광고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부부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최수종과 하희라 커플을 모델로한 여성지 쉐, 손지창, 오연수 커플을 모델로한 삼성전자의 수중강타 세탁기 광고, 유동근과 진인화를 모델로한 빨간펜광고, 서세원, 서경희 부부를 모델로한 웅진 쉐크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부부관계의 설정은 광고라는 가정한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부를 통해 그 사실감을 더하는 유형들이 주조를 이룬다. 한미은행, 태코나 광고 등이 그러하다. 그 밖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한 생표 기업PR광고, 유원양행 기업PR, SK제약

의 트라스트 광고와 은가족이 등장하는 유형으로 아쿠르트 예스, 구구 광고 등이 있다.

최근 한 광고회사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조사에서도 IMF 시대 가정은 거의 유일한 위안이며 쉐타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광고는 자연스럽게 이런 소비자들의 의식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혼란한 가족을 소재로 한 광고들이 요즘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들의 특징은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 보다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고 이는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려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양용  
글공회 카피리터

# “전환의 기점에서 도약하는 새아침을 맞이하자”

## 현실인지속에 보다 나은 새해 계획 모색해야

98년 호랑이해가 저물고 토끼해가 밝았다. 지난 98년은 IMF한파로 인해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맥없이 쓰러져버린 한 해였다.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는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99년 신년계획에서도 살필 수 있었다. 운전면허를 따서 고급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성친구를 사귀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등의 소비적이고 다분히 오락적

인 것만을 신년계획으로 삼은 학생들이 경제위기는라 한과를 맞타나 달랐다. “새해계획이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불교대의 한 학생은 신년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대문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고 그 외 취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저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이

남으면 하던 것을 이제는 학비 마련을 위해 학교를 휴학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에 전념하는 것이다. 남학생들의 신년계획 중 하나 군입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되지 않은 4학년 학생들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새해계획이라고 씩씩하게 밝히며 그 외의 것들은 사치라고 여겼다. 이처럼 학생들에게서 들은 새해계획은

IMF 이후 정신적, 경제적 타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98년 한해는 기울었다.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 것이 지난 한 해였다. 99년 새해에는 학생들이 토끼처럼 빠르고, 영특하게 경제위기 난국을 헤쳐나갈기 기대했다. (인)

# 작가인식

## 학교 밖에서

### 안소린 작품전

‘참조자, 연인, 생존자로서의 예술가’ ‘신화적인 삶의 힘’이라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금세기 영성예술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를 이끄는 안소린 작가가 펼쳐지고 있다. 영화 ‘걸’ ‘노들담의 골짜기’ ‘25’ ‘노바론’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안소린은 금년 전시회에서는 연기자로서의 모습보다는 현재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의 주옥같은 영화, 조각, 부조 등의 작품 29점이 선보인다. 오는 3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경주현대호텔문의: 053-662-0515/0503, 0561-748-2233.



Anthony Quinn

### 서에서 특별전 개최

‘옛 탁본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역사’라는 주제로 한국서에서 특별전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옛 글씨와 문양의 아름다움을 소개한 탁본의 예술세계를 알리고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오후 1시~5시.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 ‘플리저’ 상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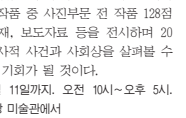
죽음은 20세기의 종언이다. 플리저 상 사진전 전이 연휴를 앞두고 열렸다. 플리저 상 수상작품 중 사진부문 전 작품 128점과 촬영기재, 보도사진 등을 전시하며 20세기의 역사적 사건과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는 3월 1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 난타 99 공연

주방을 배경으로 사물놀이들이 펼치는 난타 빌(비언어)연극이 ‘좋은 피로연을 준비하는 요리사들’이란 줄거리로 공연된다. 해의 시작 전술에 앞서 극내에서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1월 24일까지. 정동극장에서. 화~목 오후 7시, 금~일 오후 4시~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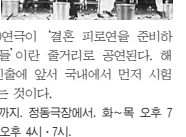
죽음은 20세기의 종언이다. 플리저 상 사진전 전이 연휴를 앞두고 열렸다.



주방을 배경으로 사물놀이들이 펼치는 난타 빌(비언어)연극이 ‘좋은 피로연을 준비하는 요리사들’이란 줄거리로 공연된다.



해의 시작 전술에 앞서 극내에서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1월 24일까지. 정동극장에서. 화~목 오후 7시, 금~일 오후 4시~7시.

# ‘설’ 풍속, 세계인의 풍속으로

설날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많은 나라들이 새해를 맞는 여러 가지 풍속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즉 풍년이 가신 조상에게 새해를 드리는 것이다.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살아 계시는 집안 어른들에게 새해를 드린다. 할아버님, 할머니님, 부모님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새해를 드린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새해를 축하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는 “올해는 장가를 가자” “건 강하게” 등의 덕담을 한다. 새해가 끝나면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새해 음식을 먹는데 설날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떡국을 먹는 것이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나이가 몇 살 이냐고 묻는 대신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고 묻기도 한다. 설날에 음식을 먹은 후에는 친척 어른이러든가 동네 어른들을 찾아 뵙고 새해 새해를 드린다. 설날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등이 있다.

이것만을 신년계획으로 삼은 학생들이 경제위기는라 한과를 맞타나 달랐다. “새해계획이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불교대의 한 학생은 신년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대문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고 그 외 취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저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이 남으면 하던 것을 이제는 학비 마련을 위해 학교를 휴학하면서까지 아르바이트에 전념하는 것이다. 남학생들의 신년계획 중 하나 군입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되지 않은 4학년 학생들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새해계획이라고 씩씩하게 밝히며 그 외의 것들은 사치라고 여겼다. 이처럼 학생들에게서 들은 새해계획은 IMF 이후 정신적, 경제적 타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98년 한해는 기울었다.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 것이 지난 한 해였다. 99년 새해에는 학생들이 토끼처럼 빠르고, 영특하게 경제위기 난국을 헤쳐나갈기 기대했다. (인)

이 풍습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많은 나라들이 새해를 맞는 여러 가지 풍속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즉 풍년이 가신 조상에게 새해를 드리는 것이다.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살아 계시는 집안 어른들에게 새해를 드린다. 할아버님, 할머니님, 부모님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새해를 드린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새해를 축하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는 “올해는 장가를 가자” “건 강하게” 등의 덕담을 한다. 새해가 끝나면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새해 음식을 먹는데 설날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떡국을 먹는 것이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나이가 몇 살 이냐고 묻는 대신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고 묻기도 한다. 설날에 음식을 먹은 후에는 친척 어른이러든가 동네 어른들을 찾아 뵙고 새해 새해를 드린다. 설날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등이 있다.

이 풍습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많은 나라들이 새해를 맞는 여러 가지 풍속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즉 풍년이 가신 조상에게 새해를 드리는 것이다.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살아 계시는 집안 어른들에게 새해를 드린다. 할아버님, 할머니님, 부모님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새해를 드린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새해를 축하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는 “올해는 장가를 가자” “건 강하게” 등의 덕담을 한다. 새해가 끝나면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새해 음식을 먹는데 설날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떡국을 먹는 것이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나이가 몇 살 이냐고 묻는 대신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고 묻기도 한다. 설날에 음식을 먹은 후에는 친척 어른이러든가 동네 어른들을 찾아 뵙고 새해 새해를 드린다. 설날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등이 있다.



## ‘새해를 바라보며’

98년 12월 31일 23시59분. 이모양은 보신과 종소리를 듣고자 울음에 어김없이 TV 앞에 앉았다. ‘내야엔, 데어영~’ 울려 퍼지는 보신과 종소리는, 비록 2021년 작은 상자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지만 이 세상 어느 종소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모양의 가슴을 울려준다. 해마다 반복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말이다. 99년 1월 1일 0시12분. 다소 지루한 만큼 종소리를 듣고 난 후 이모양은 99

년 신년계획을 하나, 둘 세우기 시작한다. 지난해 못 다 이룬 열여섯살의 꿈, 지난해 실패한 다이어트, 지난해 실천하지 못한 아르바이트, 지난해 한 듯만 못한 부모님께 효도하기, 지난해 꿈도 못 꾸던 해외여행... 하나, 둘 지키기 시작한다. 이모양은 고개를 가우뚱한다. ‘어라! 이게 지난해 계획이란 비스한데’ 올해는 한가지 더 실천해야겠다며 적어 넣는다. 올해는 이 계획 모두 성공하기. 99년 1월 1일 23시59분. 올해는 시작이 좋다. 매일 늦잠 자느라 듣지 못했던 열여섯살 라디오 프로그램을 ‘성공적’

으로 침취했고, 매일 밖에만 쓰러진다고 나무라던 이모양의 어머니가 반책을 할 정도로 잔인 일을 거들었고, 매일 거울만 보고 한탄했지만 오늘은 모처럼 공원에 나가 운동도 했다. 99년 1월 3일 0시12분. 이모양은 다시 신년계획을 세운다. 작심삼일에서 그칠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작심삼일을 일년 내내 반복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정말 멋진 99년이 될 것 같은데...’ 이모양은 토끼처럼 별다른 눈을 하고 미소짓는다. 김미경 기자

# 메아리

## 기형아

▲연신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신문, 방송 등에서 보도된다.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보행공 때려 자신의 발목을 자르기까지 한다. 또한 대학졸업자들은 죽을 사(死)란 악명을 호소하며 지고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며, 후배들과도 경쟁 아닌 경쟁을 한다. ‘절망’이란 표현보다는 ‘슬픔’이란 단어가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예전 고려시대의 ‘교려정’도 현대사회에 비할 바가 못된다. IMF가 나온 기형아가 무성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치열한 상호 경쟁 속에 ‘척척’이 없으면 ‘질투’라 한다. 이는 경쟁관념들이 어느새 개개의 의식속에 자연스레 자리잡을 것일까. 슈퍼맨이 아담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스트레스와 비애로 시대가 얼룩져 있지는 않은 것일까. 지금의 대화가 또한 등록금 내기도 힘든 상황과 상대평가라는 성격적 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치열하다. ▲남을 밟고 올라야 하는 현실, 대학교 재학할 수 없기에...시험기간 중 좋은 자료를 갈구하는 것은 예고? 지성이나 학문이나 하는 원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허황된 꿈 이야기.

잠시 뒤돌아 보았을 때, 자신의 꿈은 잃어버린 채 현실에 매몰돼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잘못된 행태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절망인지 슬픔인지 혼돈스럽다. ▲대화가 아직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기를 희망한다.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악의적으로 또다시 사회로 환원(?)돼 악순환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물론 알고 있다. 오직 윤이 좋은 녀석에 난 그 많은 친구들보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풍속에서 친구들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한자는 살아남는다’ 그러나 난 자신이 미워졌다.” 후에 브래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부르려왔던’을 자조적으로 읽을 정도로. 최정식 편집장

